

# 창 여

권은숙

## 등장인물

장진홍-경북 칠곡 출신 독립운동가. 1895년 7월 27일(음력 6월 6일) ~ 1930년 6월 30일(음력 6월 5일. 기개가 뛰어나고 희생정신과 애국심이 투철하다. 불굴의 의지를 가진 경상도 사나이.

사이도-조선 총독. 제국주의자.

박오중-진홍의 친구

준경-진홍의 친구

정화

주성-친일파.

가네마-일본 경찰

이국필-광복군. 30세.

안보혁-광복군. 18세.

왕웨이-중국 기예단.

딩레이-중국 기예단.

## 작품요약

칠곡 출신의 (창여)장진홍의 독립운동 일대기.

광복단 청년 시절부터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자결하기까지의 이야기. 이야기의 재미를 위해 사실에 기초해 픽션을 극화하였음.

### S#1. 일본의 신사 /낮

지저귀는 새소리가 평화롭게 들린다.  
푸른 나뭇잎 사이로 작지만 아름다운 일본 전통 양식의 신사가 보인다.  
카메라가 인적이 느껴지지 않는, 고요한 경내를 훑는다.  
석등과 동물 석상, 작은 연못, 본전의 모습들이 차례로 보인다.  
허름한 스님의 거처 앞. 댕돌 위에서 무언가 반짝인다.

### S#2. 신사 안 스님 방 앞 /낮

댕돌 위에 놓인 신발 두 켤레.  
낮은 나막신과 깨끗한 군화가 나란히 놓여있다.  
공을 많이 들여 닦은 듯 유난히 광이 나는 장교용 군화가 보인다.  
또르르.  
차 따르는 소리가 들린다.

### S#3. 동. 안 /낮

밖과 다르게 어두운 실내가 보인다.  
작고 낮은 탁자에 놓인 다기들.  
한때는 아름다웠으나 세월과 함께 늙어 이가 빠지고 잔금이 간 찻잔에 연듯빛 녹차가 채워진다.  
주름지고 손톱에 흙 때가 묻은 손이 찻잔을 조심스럽게 든다.  
너무 늙어 기괴해 보이기까지 한 노승이 쭈그리고 앉아 호로록~ 차를 마신다.

노승            같이 드시지요. 향이 좋습니다.

어둠을 뚫고 가늘고 선 목소리가 울리는데 그 목소리가 차갑다 못해 서늘하다.  
노승을 응시하고 있는 상대방.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만은 섬광처럼 빛난다.  
천천히 찻잔을 드는 남자의 실루엣.  
노승과 달리 단숨에 차를 마셔버리고 찻잔을 내려놓는다.  
그가 재촉하듯 노승을 바라본다.  
개의치 않고 천천히 차를 마시던 노승이 찻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입을 땀다.

노승            한 잔 더 드릴까요?

남자            차를 마시러 온 게 아닙니다.

노승            그럼 무엇 때문에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남자            유명하시다 들었습니다. 미래를 보신다고요.  
노승            괜한 수고를 하셨습니다. 하하하. 헛소문입니다.  
남자            알고 싶습니다.

노승이 고개를 들어 그를 본다.  
그는 원하는 걸 가질 때까지 일어날 생각이 없다.

노승            허허허 이미 충분히 가진 사람이 무엇이 또 궁금하십니까?  
남자            .....장교 정도로는 내 갈증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더 더 더 큰 물로  
                  나가고 싶단 말입니다.  
노승            (지긋이 바라보다)걱정하지 마십시오. 님께선 탄탄대로를 걸어 높은  
                  곳에 오르게 되십니다. 다만.

남자가 초조하게 기다린다.  
그 모습을 보고 허허허 웃는 노승.

노승            단. 한 남자가 걸림돌이 되겠군요. 그자를 없애지 못하면 결국 모든  
                  걸 잃게 되실 겁니다.  
남자            누구입니까?  
노승            (눈을 감고 웅얼거리다 번쩍 눈을 뜬다.)신께서 조선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칠곡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남자            감히 조센징이 날 막는다는 말입니까?!  
노승            (고개 끄덕이며)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자            (가소롭다는 듯)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노승            그는 강하고 곧은 사람이라 쉽지 상대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생각에 잠기는 듯 남자의 미간에 주름이 잡힌다.

남자            없앨 방법이 있습니까?  
노승            (뚫어지게 그의 눈을 본다)폭력과 협박에서 벗어나 넓은 마음으로  
                  조선인을 아우르는 지도자가 되십시오.  
남자            (코웃음)흥!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게 잘못입니까?  
노승            폭력은 결국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보이는 남자의 얼굴.  
군복을 차려입은 20대의 앳된 일본인 사이도가 무릎을 꿇고 앉아있다.  
그의 무릎 옆에 사무라이 칼이 놓여있다.

입술을 짝 다문 채 굳은 얼굴로 노승을 바라보던 사이도의 입꼬리가 올라간다.

사이도 (나지막이)역시 헛소문이었군.  
노승 제가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이도 죽을 때가 되니 신기가 떨어진 모양이군.

칼을 들고 나가려던 사이도, 장검을 뽑더니 돌아서서 획획 두 합을 휘둘러 노승의 목에 칼을 겨눈다.  
칼날이 닿은 노승의 목에서 피가 흐른다.  
노승은 안 보이는 듯 조용히 차를 마신다..

노승 향기가 좋군요.  
사이도 오늘 이 일을 그 누구에게라도 발설하면 제가 목숨을 거두러 오겠습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노승 (웃음을 그치고 담담하게)늙은이가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사이도, 장검을 칼집에 꽂고 군복을 매만진 후 획 돌아서 나간다.  
그를 바라보던 노승이 이내 작은 숨을 내쉬며 지그시 눈을 감는다.

#### S#4. 일본 총리대신 집무실 안 /새벽

어느새 이마에 주름이 생긴 사이도(36)가 바짝 긴장한 채 서 있다.  
어깨엔 계급장이 달려 있다.  
그의 뒤로 보이는 커다란 일장기.

남자 (소리)광복군을 한 명도 남김없이 처단하도록.  
각하께서 눈여겨 보고 계신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일에 자네를 지명한 거야. 이 일만 성공시키면 중앙무대로 진출해 볼 수도 있다. 전과 같은 실수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내 말뜻 알겠나?  
사이도 하이! 반드시 섬멸하겠습니다.

남자가 사이도에게 서류를 내민다.  
'극비' 낙인이 찍힌 서류다.  
사이도가 서류를 받으며 90도로 허리를 숙인다.

#### S#5. 연해주 하바로스크 인근 광복군 막사

들판에 차례로 서 있는 과녁.  
엎드려서 과녁을 겨냥하고 있는 광복군들..  
장진홍(24), 광복군들의 사격 훈련을 지도하고 있다.  
그는 의젓하고 당당한 모습이다.

진홍                   (소리친다)준비! 발사!

탕!탕!탕! 과녁으로 날아드는 총알.  
이국필, 망원경으로 과녁판을 확인한다.  
과녁 하나에 다섯 발의 총알이 정확히 명중해 있다.  
이국필, 망원경을 내리고 안보혁(18)에게 다가간다.  
보혁은 작지만 아무진 체격에 강단 있어 보이는 인상이다.

국필                   (보혁 보며)많이 좋아졌구나.  
보혁                   대장님 말씀대로 과녁판을 진짜 일본 놈들이라고 생각하고 쏘았습니다.  
국필                   사사로운 감정이 실리면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  
보혁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싸울 겁니다. 일본놈들, 그놈들한테 붙어서 조  
선인을 등쳐 지뺏대지 불리는 친일파 놈들. 그놈들을 없애야 독립을  
할 수 있으니까요.  
국필                   (보혁을 기특하게 본다.)  
보혁                   이번 전투에는 저도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국필                   그래. 대장한테 말해 보자.

진홍, 어린 광복군에게 총잡는 법을 알려주고 있다.  
국필, 다가온다.

진홍                   (광복군들 사이에서 총을 열심히 닦고 있는 보혁을 보며)보혁이한테  
차별이 심해. 노형답지 않게.  
국필                   (멋쩍게 웃으며)고향에 두고 온 막냇동생 생각이 나서. 나이답지 않  
게 생각하는 게 기특하기도 하고. 이번 전투에 데리고 나가고 싶은데.  
진홍                   아직 이르지 않을까?  
국필                   내가 옆에서 지켜보지. 너무 걱정하지 마.  
진홍                   알았어. 이국필을 안 믿으면 누굴 믿겠어.  
국필                   함부로 사람 믿지 마. 대장은 다 좋은데 그게 걱정이야.  
진홍                   하하하. 이렇게 걱정해 주는 전우가 있으니 뭐가 걱정이겠어.  
국필                   오늘 정찰 언제 나갈 거야?  
진홍                   점심 먹고 같이 가지. (광복군들에게 소리친다.)자 점심시간이다. 다들

동작 그만!

### S#6. 광복군들 막사 앞

커다란 솥에 끓고 있는 나물죽.

광복군들이 자신의 밥그릇을 들고 줄을 서 있다.

정화와 춘양이 국자로 죽을 떠서 그릇에 담아준다.

이국필의 순서가 되자 정화, 다른 광복군들보다 듬뿍 죽을 떠서 담아준다.

이국필과 눈이 마주치면 수줍게 고개 돌리는 정화. 이국필도 수줍게 고개를 돌린다.

춘양           (정화에게 속삭이는)그러지 말고 살림 차리라.

정화           그런 거 아니에요.

춘양           아니긴. 풋...(웃는)

이국필, 죽을 받아 들고 보혁 옆에 앉는다.

이국필       (자신의 죽을 한 숟가락 퍼서 보혁 그릇에 담아준다.)

보혁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이국필       한창 먹을 때다. 이번 작전에 나가려면 많이 먹고 힘을 키워야지.

보혁       ...(감격한)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국필       (무심한 척)정신 똑바로 차려.

보혁       예!(전투적으로 죽을 퍼먹는다.)

(소리)       북쪽에 침입자다!

점심 먹던 광복군들, 그릇을 내려놓더니 자신의 총을 챙겨 일제히 북쪽을 겨냥한다.

잠시 후 양손을 들고 풀숲에서 일어서는 오중, 허름한 한복차림으로 걸어나 온다.

오중       저...침입자 아닙니다. 쏘지 마세요.

이국필       누구나! 정체를 밝혀라!

오중       박오중이요. 광복군에 지원하고 싶어 찾아왔소. 나도 조선인이요!!!

이국필, 날카롭게 오중을 살핀다.

### S#7. 광복군 막사 안

오중, 양손이 묶인 채 무릎 꿇고 앉아있다.

지키고 서 있는 광복군대원 1, 2, 3,

오중           첩자도 아닌 사람을 이렇게 묶어 두는 법이 어디 있소?  
광복군대원   ....

막사 안으로 들어서는 장진홍과 이국필.

진홍           저잔가?  
국필           어. 확실치가 않아서 묶어놨어.

진홍, 오중에게 다가간다.

오중           대장님이십니까? 나는 조선에서 온 박오중이라는 사람ियो...  
                  광복군 하겠다고 찾아온 사람을 이렇게...(진홍을 본다.)너 진홍이 아  
                  니냐?

진홍           ..! 오중아!

이국필        대장 아는 사람ियो?

오중           알다마다. 장진홍이. 애가 나하고 불알친구요. 불알친구. 하하하.

진홍, 오중을 보며 미소를 짓는다.

## S#8. 칠곡 가산/ 회상/ 낮

자막   1907년.

칠곡의 전경이 화면 가득 들어온다.

타!타!타!타

빠르게 산비탈을 내달리는 발.

까까머리 오중(13)과 진환, 의환이 엽총을 들고 비탈길을 달려 내려오며 멧돼지 물이  
를 하고 있다.

통통한 외모에 허름한 옷차림의 오중과 희멀건 얼굴의 선비 스타일인 진환과 콧물을  
흘쩍이는 개구쟁이 의환.

오중, 뭐가 불만인지 연신 투덜거리고 있다.

오중           발바닥에 불나네. 누구는 죽어라 뛰고 누구는 명령이나 하고.

의환           우리 큰형은 인명 학교 우등생이니까.

오중           칫! 내가 공부를 안 해 그렇지 맘먹고 했으면 진홍이는 대도 았았어.

진환           선생님이 형한테도 나라 위해 큰일 할 사람이라고 했남?

오중           다...당연하지. 나라 위해 큰 사람 될 거라고. 진홍이한테 나를 잘 보

필하라고 했지.

의환            그럼 형도 멧돼지 잡아 봤어?

오중            맨날 진흥이가 대장질하니까 못 잡은 거지. 나한테 맡겼으면 나도 벌써 열 마리는 잡았어.

비탈 아래서 날카로운 눈빛과 또래보다 큰 키에 단단한 체격의 진흥(13)이 사냥총을 맨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휘파람을 분다.

휘파람 소리에 고개를 드는 오중과 진환, 의환.

진흥이 오중과 진환에게 멧돼지가 있는 곳을 손짓하면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양 쪽으로 흩어진다.

진흥도 조심스럽게 이동하는데.

오중이 서두르다 미끄러져 넘어진다.

쿵!

오중            아이고 아파라!

저도 모르게 터진 비명에 오중이 놀라고 진환과 의환도 오중을 보며 인상을 쓴다.

의환            치. 멧돼지를 잡기는. 멧돼지한테 잡아먹혔겠다.

진환            췌!

진흥, 멈춰 선 채 넘어진 오중이 무사한지 돌아본다.

오중, 일어나며 진흥에게 괜찮다는 듯 손짓해 보이면,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멧돼지를 쫓아 달려가는 진흥.

## S#9. 산등성이

‘우적우적’ 여유롭게 옥수수 대를 씹어 먹는 멧돼지.

그 크기가 족히 2m는 되어 보인다.

어느새 바위 뒤에 숨어 있던 진흥이 모습을 드러낸다.

조심스럽게 멧돼지를 향해 총구를 겨누는 진흥.

맞은편에 서 있는 두 그루의 나무 밖으로 쭉쭉 얼굴을 내미는 오중과 진환, 의환.

세 사람이 멧돼지를 중심으로 삼각형을 만들고 있다.

오중과 진환, 의환이 숨죽인 채 멧돼지를 겨냥하며 진흥의 신호를 기다린다.

오중            빨리 좀 하지. 저러다 또 도망가겠다. 놓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진환            췌! 아직 신호 안 왔잖아.

오중                    이러다 날 새겠네. 안 되겠어. 이번엔 내가 잡겠어.

뭔가 인기척을 느낀 멧돼지가 귀를 쫑긋 세우며 경계한다.

오중, 총구의 방향을 틀다 손잡이 부분이 나뭇가지에 걸린다.

총을 빼내려 안간힘을 쓰던 오중이 중심을 잃고 비명을 지르며 땅으로 떨어진다.

쿵!

획!

고개를 쳐든 멧돼지가 오중과 눈이 마주친다.

잠간의 정적이 지나가고.

쿵쿵쿵!

멧돼지가 오중을 향해 쏘살같이 돌진해 온다.

으악!!!

공포에 질리는 오중.

도망치려고 몸을 일으키는데 마음은 급하고 몸은 굳어 꼼짝도 못 한다.

그저 총을 찾으려고 손만 허우적거리는데.

탕탕탕!

나무 위에서 진환이 달려오는 멧돼지를 향해 어설픈 자세로 총을 쏜다.

그러나 한발도 명중시키지 못한다.

진환                   (다급하게)에이씨!!

오중                   (눈물 콧물 범벅으로 소리친다)진환아!! 진환아!! 나 좀 살려줘!!

진환, 침착하게 오중에게 돌진하는 멧돼지를 눈으로 좇으며 신중하게 방아쇠에 손가락을 가져간다.

순간 시간이 멈추고 주위는 고요해진다.

크앙!!

멧돼지가 긴 이빨을 드러내며 오중을 덮치려는 찰나.

진환이 방아쇠를 당긴다.

타앙!

공포에 질린 오중, 이제 끝이구나.

지지리 가난하게 살다 결국 총각 귀신으로 죽는다고 하며 눈을 감는다.

그러나 쿵! 소리는 들리는 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중이 감고 있던 한쪽 눈을 슬쩍 떠보는데.

코앞에서 멧돼지가 피를 흘리며 죽어 있다.

오중                   (놀라)엄마야!!!!

진환과 의환이 나무 위에서 진흥을 보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활짝 웃는다.  
그제야 긴장하고 있던 진흥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진다.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오중의 다리 밑으로 오중이 흘러내린다.  
진환과 의환이 나무 위에서 내려온다.

의환 (놀라)형아 오중쌌어?  
오중 어? 아니야.  
의환 하하하. 아니긴 바지가 다 찢었는데.  
오중 (여전히 벌벌 떨며)이거 소문내면 죽을 줄 알아! 약속해!  
진환 설마 그러겠어? 걱정마. ㅋㅋㅋ.  
오중 (깔깔대고 웃고 있는 의환보며 버럭)웃지 마!

다가오는 진흥.

진흥 오중이 너 오중도 싸고. 진짜 많이 놀랐구나?  
오중 아니라고! 이거 멧돼지 침이야. 침. (죽은 멧돼지를 발로 차며)이 자식이 흘린 거라고!  
의환 (놀리는)요 돼지 새끼가 형아 불알이 먹고 싶어 환장한 모양이네. 이렇게 죽어서도 코를 박고 침을 질질 흘린 거 보면. 하하하.  
오중 웃지 말라니까.

오중, 화풀이로 죽은 멧돼지를 발로 차기 시작한다. 퍽! 퍽! 퍽!

진환 형이 멧돼지를 두 번 죽이네. 하하하.

웃으며 오중을 바라보는 진흥과 진환, 의환.

진흥 더운데 그만하고 씻으러 가자.  
의환 응. 그래야 할까 봐. 어디서 지린내가 짹 짹 나는 게 (토하는 시늉)욱.  
오중 이 새끼!!! 진흥이 동생이라고 봐줬더니. 너 죽었어!

오중이 달려가면, 깔깔거리며 도망가는 의환.  
진환이 둘을 말린다.  
웃으며 보는 진흥.

S#10. 막사 안(현재 / 밤)

옛 생각에 잠겨 있던 진흥이 고개를 든다.  
오중이 테이블에 마주 앉아있다.

진흥            못 알아볼 뻔했다. 살도 빠지고.  
오중            굶는 걸 밥 먹듯 하는데 살찌는 게 이상치.  
진흥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오중            너도 나를 의심하니? 일본 놈 때문에 서러워서 고향 땅 등지고 왔더  
                  니 친구 놈도 적군 취급이구먼. 서운하다 야.  
진흥            여긴 쉽게 찾을 수 있는 데가 아니야.  
오중            이 근방 어디 광복군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몇 날 며칠 산자락을  
                  훑었지. 그냥 밭길 가는 데로 다녔는데 운 좋게 찾은 거야. 꼭 니가  
                  있을 것 같더라.  
진흥            다들 어떻게 지내니?  
오중            말도 마라. 일본 놈들 등쌀에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오죽했으면 내가  
                  그놈들 때려잡자고 고향 땅을 버리고 왔을까?  
진흥            ...  
오중            어차피 죽을 거라면 나라 위해 목숨 바치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 우  
                  리 인명 학교 다닐 때 장지필 선생님 앞에서도 다같이 그렇게 맹세하  
                  지 않았니.  
진흥            (미소 짓는다.)그랬었지.  
오중            근데 뭐 먹을 거 없니? 이틀을 굶었더니 눈에 띄는게 없다.  
진흥            식사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갖다줄 거다. 쉬고 있어.  
오중            너는?  
진흥            나는 일이 있다.  
오중            작전 나가는 거면 나도 끼워주라. 너 내 솜씨 알지?  
진흥            (웃으며)오늘은 그냥 쉬는 게 좋겠다. 대원들하고 인사는 이따가 다녀  
                  와서 하지.  
오중            그래. 다녀와.

진흥, 일어나서 나가면.  
오중, 허허실실하던 표정이 차갑게 변하면서 날카로운 눈으로 막사 안을 훑어본다.

## S#11. 막사 밖

진흥과 이국필, 이정철이 정찰을 나간다.  
보혁, 그들을 배웅하고는 정화에게서 죽그릇을 받아 들고 막사 안으로 들어간다.

## S#12. 막사 안

보혁, 막사 안으로 들어오다 진흥의 작전일지를 살펴보는 오중을 본다.

보혁            ..!!!  
오중            (인기척에 작전일지 슬쩍 내려놓으며)광복군일을 하는데도 글을 알아야 되나? 나는 까막눈인데.  
보혁            ...저도 글 잘 몰라요. 식사 가져왔습니다.  
오중            (보혁이 내려놓은 죽을 보고)죽 먹고 힘을 쓰겠어?  
보혁            일주일에 한 번은 대장님이 사냥하신 고기도 먹습니다.  
오중            (허겁지겁 죽을 떠먹는다.)알았으니까 나가봐.  
보혁            (오중을 유심히보다 표정이 조금씩 굳어진다!)  
오중            (보혁을 본다.)왜 그렇게 뻘히 보니? 어디서 나 본 적 있니?  
보혁            (당황한다)아...아닙니다. 그럼 저는...(허둥거리며 막사를 빠져나간다.)  
오중            ...! (느낌이 안 좋다.)

눈으로 보혁을 유심히 쫓는다.

## S#13. 막사 밖

보혁, 사색이 돼서 서 있다.

정화, 지나가다가 보혁을 본다.

정화            보혁아 너 안색이 왜 그래? 어디 아파?  
보혁            저 대장님 어디 계십니까?  
정화            좀 전에 정찰 나가셨잖아. 같이 배웅해놓고는.  
보혁            언제 오세요?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있는데.  
정화            저녁때쯤 오시겠지. 나한테 말해.  
보혁            .....아니에요.

웃는 정화, 보혁의 머리를 헝클이다 가면.

보혁, 안절부절못하며 빠르게 어디론가 간다.

막사 안에서 그런 보혁을 지켜보는 오중.

## S#14. 산등성이 근처

보혁, 바빠 산등성이를 뛰어 올라가는데 앞을 막아서는 오중.  
보혁, 놀란다.

오중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나?  
보혁           (긴장한 채 보다가 품 안에서 칼을 꺼내 겨눈다.) 꼼짝 마!  
오중           (양팔들며) 왜 이러나? 같은 조선인끼리.  
보혁           당신을 봤어. 일본 놈한테 붙어서 조선인을 핍박하던 친일파!  
오중           사람을 잘못 봤겠지. 나는 장진홍이 친구 박오중이야. 봤잖아.  
보혁           ...(부들부들 떨린다.) 아니야. 당신 얼굴 똑똑히 기억해.

오중,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보혁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인다. 올라가미에 걸린 것처럼 꼼짝 못 하는 보혁. 괴로워하는 보혁의 목을 더 세게 죄다. 마침내 축 처지며 숨이 끊어지는 보혁.

#### S#15. 낭떠러지

오중, 보혁의 시체를 둘러메고 낭떠러지로 다가오더니 아래로 던져 버린다.

오중           바보 같은 새끼. 명을 재촉하다니.

냉정하게 돌아서는 오중.

#### S#16. 연해주 하바로스크 인근 광복군 막사 앞/아침

누군가를 찾느라 분주한 광복군들의 모습.  
이국필과 장진홍, 이정철, 심각한 얼굴로 서 있다. 진홍 옆에 오중이 서 있다.  
다가오는 광복군1, 오중을 힐끗 의식하더니 장진홍에게 귓속말하고 간다.

진홍           없다는데.  
이정철       감쪽같이 어디로 사라진 거야.  
정화       (다가온다.)  
이정철       어떻게 됐어?  
정화       근처는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진홍       ...  
정화       어제 대장님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기다렸는데.  
이국필       ....! 언제?  
정화       나가시고 한식경짬 지나서요.

오중                겁먹고 도망친 거 아닌가? 나이도 어려 보이던데.  
 이국필            (무섭게 오중을 쏘아보며)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오.  
 오중                ...보이는 게 다가 아니요. (가면)  
 진흥                보혁이를 몰라서 하는 소리네 신경 쓰지 마.  
 이정철            그래. 기다려 보자고.

**S#17. 연해주 하바로스크 일본군 막사/저녁**

망원경 속으로 보이는 일본군 막사 앞.  
 총을 닦거나 쪽잠을 자는 등 한가한 저녁 시간의 모습.  
 일본군 복장으로 변장한 덩레이와 왕웨이와 막사 앞으로 다가온다.  
 군인들의 시선을 피해 슬그머니 막사 안으로 들어가는 덩레이.  
 왕웨이가 보초를 서듯 앞을 막아선다.

**S#18. 근처 산자락 /저녁**

숨어서 망원경으로 일본군 막사를 정탐 중인 진흥과 정팔, 이국필, 이정철.  
 망원경을 번갈아 보던 이국필과 이정철.

이정철            어라...저 여자 이상한데?  
 이국필            (망원경 뺏어서 본다.)  
 이정철            하는 행동이 아주 수상한 게 첩자 냄새나지 않아?  
 진흥                (망원경으로 쪽 막사를 주시하고 있다. 망원경 속에 보이는 덩레이의  
                           얼굴을 유심히 본다. 낮이 익다.).....! (덩레이를 알아본다)  
 오중                어디 봐 어디? (이정철의 망원경을 뺏어 본다.)  
                           일본군들이 짝 깔린 데를 들어가다니 멋있는데.  
 이정철            멋있기는.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오중                어어. 걸렸다.

어디. 어디. 오중과 이정철이 서로 망원경을 뺏으려고 난리다.

**S#19. 망원경 속 /저녁**

일본 막사에서 나오는 덩레이와 왕웨이.  
 둘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기무라가 막사 안으로 들어갔다. 급히 뛰어나오더니 뭐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보인다. 동시에 뛰어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덩레이와 왕웨이.  
 일본 군인들이 둘을 쫓고. 어느새 총격전이 벌어진다.

## S#20. 산자락 /저녁

이정철, 총격 소리에 쫓쫓 혀를 찬다.

이정철           (오중에게)내가 뭐랬어? 죽으려고 환장한 거랬지.  
오중               어어....저 사람들 이쪽으로 오는데.  
이국필           오늘은 그냥 돌아가야겠는데 대장.  
진홍              (망원경 내리며 총을 장전한다.)지원 사격해.  
오중               왜?  
진홍              우리 편 같은데 도와줘야지.  
오중               흐미. 또 오줌 지리겠네.

진홍, 산자락을 내려가면.  
이국필과 이정철, 오중이 뒤따른다.

## S#21. 산자락 /저녁

딩레이와 왕웨이, 왕웨이, 진홍 일행을 따라 조심스럽게, 그러나 빠르게 반대쪽으로 이동한다.  
그 후에 나타나는 일본군인들. 사이도가 앞장서고 있다.  
딩레이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알고 '빠가야로' 성질을 낸다.  
사이도, 잠시 주변을 살펴보다 손을 들어 군사들을 제지한다.  
천천히 다가가는 곳.  
땅에 핏물이 방울방울 떨어져 있다.  
핏방울을 따라 이동하는 사이도.

진홍              (풀숲에서 작은 목소리로)이쪽이야!  
딩레이           (휙 돌아서며 총을 겨눈다)  
진홍              거긴 낭떠러지.  
딩레이           당신은!! (진홍을 알아본다.)  
진홍              이쪽. (고갯짓하고 앞서가면)  
딩레이           (뒤따라오는 일본군을 보고는)오빠 이쪽이야. (진홍을 쫓아간다.)  
왕웨이           (딩레이를 잡으며)함정이면 어쩔려구.  
딩레이           아는 사람이야.

딩레이, 왕웨이, 진홍 일행을 따라 조심스럽게, 그러나 빠르게 반대쪽으로 이동한다.  
그 후에 나타나는 일본군인들. 사이도가 앞장서고 있다.  
딩레이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알고 '빠가야로' 성질을 낸다.  
사이도, 잠시 주변을 살펴보다 손을 들어 군사들을 제지한다.  
천천히 다가가는 곳.  
땅에 핏물이 방울방울 떨어져 있다.  
핏방울을 따라 이동하는 사이도.

S#22. 두만강 근처 광복군 막사 /저녁

딩레이, 진흥을 보고 고개 숙인다.

딩레이            큰 신세를 졌습니다.  
진흥                서로 한 번씩 살려줬으니 이제 빚은 없는 겁니다.  
이정철            대장 아는 사람입니까?  
진흥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우는 동지들입니다.  
                      예전에 목숨을 한번 빚진 적이 있죠.  
이국필            대장을 살려주신 분들이라면 우리한테도 은인들입니다.

오중의 팔뚝에서 떨어진 핏방울이 풀잎에 떨어진다.

이정철            (보고)어, 형씨! 다쳤어?  
오중                (팔을 감싸며)아. 아까 넘어질 때 나뭇가지에 찢겼나 봐.  
이국필            어디 봐. (상처를 살피며)나뭇가지에 찢겼다고?  
딩레이            (오중을 주시한다.)  
오중                (딩레이의 시선 의식하며 팔을 뺀다)괜찮아.  
이정철            어서 갑시다. 우리 정화씨가 피 금방 멎게 해줄거유. 안 그래 우형?  
이국필            (이정철을 흘기는)

정화, 다가온다.

정화                다녀오셨어요?  
이국필            어이쿠. 나와 계셨어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으셨나.(정철을 힐끗 보  
                      면)  
정화                ...(부끄러워 고개 숙이면)  
이정철            쓸데없는 소리 말고 정화씨 이 사람 손가락 좀 치료해 주세요. 피를  
                      많이 흘리는데 빨리 지혈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중                (엄살 부리는)아이고 아파라. 죽겠네.  
정화                다치셨어요? 따라오세요.

오중, 정화와 함께 막사로 들어간다.

이국필, 그런 오중을 주시하는데.

진흥                (다가온다. 딩레이와 왕웨이 가리키며)저 두 사람도 오늘 밤 우리 막  
                      사에 묵을 겁니다.

이정철            그건 안 될 말이요! 아무리 대장 목숨을 구해줬다고 해도 나는 조선 사람 아니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이국필            일본군 막사에 쳐들어갔다 온 거 못 봤어?

이정철            그게 더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일본군 막사까지 쳐들어갔는데 총한 방 안 맞고 빠져나왔는지. 그게 의도된 건지 아닌지 어찌 알아요?

딩레이            (다가오며)우리는 당신들 편입니다.

이정철            어디 사기꾼이 나 사기 치는 사람입니다. 하고 떠들니까? 자기는 흰 눈 처럼 깨끗한 인간이라고 하지.

왕웨이            일본군이 우리 부모님을 죽였어요. 그래서 일본군은 우리한테도 원수예요. 이 말도 못 믿겠다면 할 수 없죠. 잠깐만 쉬었다 떠나겠습니다.

이국필            우리끼리 왜들 싸우고 이럽니까? 하도 정탐꾼이 많아서 신중하는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정철이 뭐해? 어서 사과드리지 않고.

이정철            (머쓱한)내 말이 좀 심했다면 미안합니다.

그때 춘양이 달려온다.

춘양                대장님 오셨어요?

진홍                손님이 오셨는데. 두 사람분 식사를 더 만들어야겠어요.

춘양                예. 그렇게요.

진홍일행, 막사로 들어간다.

### S#23. 광복군 막사 /밤

희미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횃불.  
 정화와 춘양, 커다란 가마솥에 끓인 죽을 나눠주고 있다.  
 제각각 저녁 식사를 받아서 삼삼오오 모여 식사를 하는 광복군들.  
 풀숲이 사사사삭 움직인다. 곧이어 어둠 속에 모습을 드러내는 사이도 가네마.  
 그 뒤로 무장을 한 일본 병사들.  
 막사를 바라보는 사이도의 얼굴에 잔인한 미소가 번진다.

### S#24. 막사 안 /밤

딩레이와 왕웨이, 진홍, 오중, 이국필, 이정철, 유동하, 정화가 모여 있다.  
 오중은 팔에 형겅을 감고 있다.  
 테이블 위에 일본 막사가 그려진 지도가 놓여있다.

딩레이 (막사 뒤쪽에 동그라미를 치며)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세 군데에 기관총이 설치돼 있어요. 저격수가 총을 잡기 전에 사살하고 우리가 먼저 접수해야 해요. 그리고 (다른 곳에 동그라미 치며)여기하고 여기가 무기 창고예요.

이정철 거기 기관총도 있나?

딩레이 당연히 있어요.

이정철 거기는 내가 가지 대장.

진홍 우동지랑 왕웨이가 기관총을 잡아. 딩레이는 나하고 같이 움직이지.

이정철 기관총만 손에 넣으면 그냥 일본 놈의 새끼들을 다다다다.

하는데 다다다다. 기관총 퍼부어대는 소리가 들린다.  
일동, 동작 정지. 막사 안으로 춘양이 급히 뛰어온다.

춘양 큰일 났어요. 일본군들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모두, 총을 챙겨 들고 막사 밖으로 나간다.

## S#25. 막사 밖 /밤

일본군들이 무장해제 상태의 광복군들에게 총을 난사하고 있다.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쓰러지는 광복군들.  
사이도가 막사에서 나오는 진홍 일행을 보고 소리친다.

사이도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모조리 썩 죽여!

사이도의 명령을 받은 일본군인들, 더욱 잔인하게 사람들을 유린한다.  
총알이 떨어지자 칼로 찔러 잔인하게 사살하는 군인들.  
진홍과 딩레이, 왕웨이 등 광복군들도 일제히 몸을 숨기며 대응 사격을 시작한다.  
집요하게 진홍 일행을 쫓는 사이도.

진홍 정확야 남은 동지들 데리고 일단 피해. 이국필, 이정철 동지는 나하고 함께 움직입니다!

모두 예. 알겠습니다.

진홍과 이국필, 이정철, 딩레이, 왕웨이가 대응 사격을 하는 사이 정화가 다치거나 남은 광복군들을 데리고 피한다.

진홍, 이국필, 이정철과 덩레이, 왕웨이와 반대 방향으로 흩어져 공격하며 일본군을 교란하게 시킨다. 일본군들도 진홍 일당이 쏜 총에 맞고 쓰러지기 시작한다. 사이도, 광복군을 둘러보다 풀숲에서 피어오르는 불꽃에 시선이 멎는다. 그 총에 맞고 족족 쓰러지는 일본군들.

사이도            엄호사격.

사이도, 몸을 숙여 진홍에게 다가간다.  
일본군들이 사이도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엄호사격을 해준다.  
사이도 풀숲에 숨어 총을 쏘고 있는 진홍을 발견한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총을 겨누는데.  
진홍이 인기척을 느끼고 몸을 돌린다.  
탕!  
총소리와 함께 진홍이 엎드려 있던 풀숲에 불꽃이 있다.  
진홍이 몸을 일으켜 사이도에게 달려들어 바닥을 뒹굴며 몸싸움을 한다.  
싸우면서 총을 놓친 두 사람.  
재빨리 몸을 일으키면서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꺼내는 사이도.  
진홍도 발목에 차고 있던 단검을 꺼내 맞선다.  
팽팽하게 서로를 노려보는 두 사람.  
진홍을 본 사이도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진다.  
진홍도 사이도를 알아본다.

## S#26. 조선보병대(회상)

연병장 앞에 서 있는 군인들.  
20살의 앳된 사이도와 오중의 모습이 보인다.  
조선보병대 앞에 서 있는 일본군들.  
사이도(32)가 앞에 나선다.

사이도            우리 일본군은 일본에 맞서는 조센징들을 철저히 응징한다.  
                      오늘 일본에 맞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몸소 보여줄 것이다.  
                      알겠나!  
보병대            하이!

## S#27. 관사 복도/ 회상 / 밤

진홍과 오중, 보병대 1, 2가 나무 뒤에서 관사를 훑쳐보고 있다.

방문 앞을 지키고 있는 일본군1,2가 보인다.

오중 (겁먹은)이러다 걸리면 어찌려고.

진홍 안 걸리면 돼.

오중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

보병대1 너만 잘하면 돼.

오중 조선인들 살릴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다 우리 목숨 잃으면.

보병대2 너 먼저 가!

보병대2가 오중의 등을 떠미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복도로 나선 오중.

일본군1,2 누구냐!

오중 (양손 번쩍 들며)쏘지 마세요.

일본군1 조센징! 무슨 일이야?

오중 소피가 마려운데 변소가.

일본군2 니들 변소는 바깥에 있잖아. 당장 나가!

일본군 1, 2가 구둣발로 오중의 엉덩이를 걷어찬다.

오중 아고 아야.

오중이 쓰러지는 척하며 웅크린다.

일본군 1, 2가 오중에게 다가간 사이 뒤에서 나온 진홍이 관사 안으로 들어간다.

#### S#28. 관사 안/회상/밤

작은 손전등을 들고 책상으로 다가가는 진홍.

책상 서랍에 아무것도 없다.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는 진홍.

손전등을 벽에 붙여놓은 도표에 멈춘다.

지도에 표시된 붉은 서커스단과 시간이 적혀있다.

#### S#29. 붉은 서커스단 막사 안(새벽)

잠자고 있던 덩레이가 잠결에 단도를 치켜든다.

진홍 던지지 마시오.

당레이            누구냐!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진홍.

진홍            빨리 이곳을 떠나시오. 당신들이 독립군을 돕고 있다는 정보가 새나  
                     갔오. 곧 있으면 일본군들이 쳐들어와 이곳을 불태울 것이오.

당레이            (손전등으로 진홍을 쭉 훑는다.)넌 일본군이 아니냐!

진홍            내 이름은 장진홍! 조선보병대 출신이오. 지금은 일본군에 속해있지만  
                     나는 조선인이오.

당레이            니 말을 어떻게 믿지?

진홍            그렇지 않았으면 당신은 벌써 죽었을 테니까.

당레이 진홍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왕웨이가 뛰어 들어온다.

왕웨이            큰일 났어. 일본군이 몰려오고 있어. 어서 피해야돼.

당레이, 진홍을 힐끗 보고 왕웨이를 따라 막사를 나간다.

### S#30. 막사 밖 / 회상 / 새벽

막사를 빠져나가는 왕웨이와 서커스단원들.

### S#31. 막사 안/회상/ 새벽

사이도가 일본군을 끌고 막사 이곳저곳을 쭉시고 다닌다.  
그러나 텅 비어 있다.

사이도            빠가야로!

### S#32. 막사 밖 / 회상/ 밤

사이도, 막사를 빠져나가는 당레이를 보고 쫓아간다.

사이도            저쪽이다. 놓치지 마라.

어느새 일본군 사이에 섞여 있던 진홍이 사이도를 쫓아간다.

사이도가 덩레이를 쏘려는 순간,  
몸을 날려 덮치는 진흥.  
몸싸움을 벌인다.  
진흥이 사이도의 손을 움켜쥐어 쥐고 있던 총을 떨어뜨리게 만든다.

사이도            감히 대일본 제국의 군복을 입고 대일본 천황폐하를 모욕하다니.  
진흥            대일본 천황폐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는 조선인이다.

진흥이 사이도의 머리를 박치기로 박아버린다.  
사이도가 몸을 일으키면서 장검을 꺼낸다.  
휘두르는 칼을 날렵하게 피하는 진흥.  
사이도의 칼을 빼앗아 사이도를 향해 힘차게 칼을 휘두른다.

사이도            (비명)으악!!!

### S#33. 막사 밖 / 현재 / 밤

진흥            용케도 살아있구나 사이도!  
사이도            이 조센징 새끼! 그때 니놈 때문에 내가 어떤 치욕을 당했는지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사이도가 왼쪽 의수를 빼서 흔들어 보인다.

진흥            이거 아쉽군. 나는 팔 하나는 잘라낸 줄 알았는데. 겨우 손목이라니.  
이번엔 광복군을 잡아 공이라도 세우려는 겐가. 내가 있는 한 어림도 없다.

사이도            나도 두 번의 실패는 없다.

진흥과 꼭 붙어있던 사이도가 떨어지면서 장검을 꺼내 휘두른다.  
그때 진흥과 사이도 가까이 다가오는 가네마.  
다가오던 덩레이와 왕웨이.  
가네마가 덩레이를 발견하고 총을 발로 차서 떨어뜨리고 격투기를 한다.  
밀리는 가네마. 덩레이가 일본군의 몸에 매달려 목을 조른다.  
일본군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면 그제야 감고 있던 다리를 풀어내는 덩레이.  
그때 칼을 휘두르던 사이도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권총을 주워들고 진흥을 겨눈다.  
진흥이 재빨리 몸을 굴러 풀숲으로 숨는다.

발딱 몸을 일으키며 사라진 진흥을 찾으며 발악하듯 비명을 지르는 사이도.  
마침 일본군과 싸우고 있는 왕웨이와 덩레이를 발견하고 총을 겨눈다.  
왕웨이, 덩레이와 눈짓하고 고개를 돌리는데 저만큼 덩레이를 겨냥하고 있는 사이도  
가 보인다. 왕웨이 반사적으로 덩레이를 밀며 대신 총을 맞는다.  
그때 풀숲에서 광복군 지원군이 도착한다.

‘이야야아~~~~’

함성을 지르며 달려오는 지원군들을 보고 이를 가는 사이도.

사이도            일동 후퇴!

사이도 이를 갈며 부하가 가져온 말에 올라타고 재빨리 현장을 떠난다.  
사이도의 총에 맞고 쓰러지는 왕웨이.  
울컥! 피를 토하며 쓰러진다.

덩레이            오빠....오빠....정신 차려요. 제발! 눈 좀 떠봐.  
왕웨이            덩레이....끝까지 살아남아라.  
덩레이            안 돼. 죽지 마. 나 혼자 두고 가면 안 돼. 안 돼 오빠...  
왕웨이            (스르륵 눈을 감는다.)  
덩레이            오빠!!!....(절규하는 덩레이.)

숨을 거두는 왕웨이.  
오빠의 시체를 안고 울부짖는 덩레이.

#### S#34. 산등성이 어느 곳 /새벽

몇 명 남지 않은 광복군들이 탈진해서 여기저기 쓰러져 있다.  
그나마도 다치거나 의식을 잃은 광복군들이다.  
정화와, 춘양 등이 분주하게 부상병들을 치료하고 있다.

#### S#35. 동. 일각

흙으로 만든 작은 봉분 앞에 모여있는 진흥과 오중, 이국필, 이정철.  
덩레이가 봉분 앞에 넋을 놓고 앉아있다.

이정철            니미럴...우리 있는 데는 어떻게 안거야?

오중 .....  
진홍 .....

플래시컷.  
일본군 막사에 묶여있던 오중.

딩레이 !....변절자....

딩레이, 오중을 노려본다.  
모두의 시선이 오중에게 옮겨간다.

오중 (긴장하는)  
진홍 오빠를 잃은 일은 유감이지만 그렇다고 우리 동지를 의심하는 건 참을 수 없습니다.

오중 이거 똥편 놈이 성낸다고...변절자는 당신들 아니야?(사람들에게 호소 하듯)생각해봐. 이 사람들이 들어온 다음에 일본군이 들이닥쳤잖아. 당신들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아무 문제 없었다고.

모두의 시선이 이번에는 딩레이를 향한다.  
딩레이, 여전히 오중을 노려보고 있다. 확신에 찬 눈빛.

오중 그리고 며칠 전에 도망간 보혁이란 놈도 있잖아. 그놈이 끈질겼을지..  
이국필 (오중의 먹살을 잡고 분노의 눈빛으로 노려본다.)

오중 왜 이래.

이정철 우형...

이국필 (먹살을 내려놓고는 오중의 팔을 잡더니 두르고 있던 형걸을 벗기고 상처를 살핀다)나뭇가지에 긁힌 상처라고?

오중 (황급히 팔을 빼내며)우형까지 왜 이래! 나 아니야. 진짜 아니라고. 왜 생사람을 잡고 난리야. 그렇잖아도 동지들 잃고 얼마나 마음이...(울컥 해서 눈물 훔치며)동지들한테까지 의심 사면서 남아 있을 이유가 없지. 차라리 나갈게. 그럼 되지?

오중, 돌아서면.

이정철 (잡아서 달래는)왜 그래. 졸지에 수백 명의 동지까지 잃고 우리끼리 싸워서야 되겠어?

오중 (이국필을 노려보며)사과하지.

이국필           내가 좀 과했소.

오중, 획 가면.

이국필           나뭇가지에 찢긴 상처라기엔 좀 이상해서.

진홍           동지를 의심하는 건 나도 용납 못 해.

딩레이           (일어나며)난 떠나겠어요.

(진홍에게)당신의 믿음이 맞길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죽은 이 많은 사망자를 대할 염치가 없을 테니까.

명심해요. 적은 가장 가까운 곳에도 있다는 걸.

딩레이, 가면.

바라보는 진홍.

### S#36. 별판 /낮

드넓은 별판을 걷는 진홍과 오중, 이국필, 김정묵 등 수십 명의 광복군.

오중, 피 묻은 형겅을 돌멩이로 싸서 줄로 묶는다.

형겅을 높은 나뭇가지 위로 획 던져서 걸치는데 광복군1이 다가온다.

오중, 나무 앞에서 오줌을 싸는 척한다. 광복군 1, 오중 옆에 서서 같이 오줌을 싼다.

광복군들. 추위를 피해 차가운 감자를 먹고 있다.

### S#37. 베이징 /낮

자막 1925년 9월

비가 내리고 있다.

광복군들이 몸을 숨기며 들어선다.

### S#38. 건물 안 /낮

많은 한인이 진홍의 말을 듣고 있다.

진홍, 연단에서 연설하고 있다.

진홍의 연설에 시큰둥한 사람들.

### S#39. 주막 /밤

진홍, 힘이 쭉 빠져 있는 광복군들에게 술을 채워주며 다독인다.

진홍                자 다들 기운을 잃지 맙시다.

진홍, 돌아가며 술잔을 채우는데 한 무리의 일행이 주막으로 들어선다.

사내1              여기 장진홍 동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진홍                (앞으로 나서며)제가 장진홍입니다.

사내1              반갑소. 나는 조선에서 온 이가요.

사내2              나는 김가요. 우리도 힘을 합치고 싶어서 찾아왔소.

진홍                환영합니다. (손을 내밀어 악수한다.)

사지에서 동지들을 보자 다들 뜨거운 눈물이 솟구친다.

#### **S#40. 집 지하실 안 /낮**

모여 있는 사람들.

이국필              우리가 일본을 벌하지 않으면 대한제국이라는 나라와 동양의 평화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린 대구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국필의 힘 있는 말에 호응하는 몇몇 사람들.

#### **S#41. 몽타주(훈련받는 광복군과 일본인들의 만행)**

산등성이 공터에서 검술 훈련받는 광복군들. 산등성을 뛰어다니며 힘겨워한다.

이국필, 남형우, 김창숙 등이 각기 검술, 격투, 활쏘기, 칼침, 사격 등의 훈련을 교육시키고 있다. 말을 타고 가며 총을 쏘는 진홍. 정확하게 과녁에 맞힌다.

대나무 숲.

말을 타고 달리며 칼을 휘두르는 진홍.

진홍이 지나간 자리의 대나무가 주르르 잘려 나간다.

민간인 집에 들어가 민간인을 끌어내는 일본군.

잡아 온 민간인에게 매질하고 인두로 지지며 잔인하게 고문한다.

산등성이 공터.

제법 군인 태가 나는 광복군들. 능숙하게 검술훈련, 격투, 활쏘기, 사격 등의 훈련을

해나간다.

날다람쥐처럼 산등성이를 오르내리는 모습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진흥 일행. 그중에 오중의 눈빛.

오중, 훈련 중에 무단으로 이탈하려다 이국필이 나타나자 시치미 떼며 돌아선다.

민가를 돌아다니며 군자금을 모으는 진흥 일행.

주막에서 식사하는 진흥 일행. 오중이 소피가 마렵다며 뒷간으로 간다.

오중, 돌맹이에 쓴 흰 천을 나뭇가지에 던지는데 불쑥 나타나는 국필.

오중, 중심을 잃으면서 자신이 던진 돌맹이에 맞고 넘어진다.

땅에 일본 글자가 적힌 흰 천이 떨어져 있다.

오중, 국필이 못 보게 엄살을 피우며 천위로 엎어진다.

국필, 그런 오중을 한심하게 본다.

조선.

쌀이며 감자 등 수확한 농작물을 가져가는 일본군.

조선인 가족이 맨발로 쫓아가다 주저앉아 통곡한다.

야학당을 급습하는 일본군.

선생과 학생 등을 끌고 간다.

형무소.

고문으로 피투성이가 된 선생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

산등성이 입구.

우르르 산으로 올라가는 광복군들.

#### S#42. 사이도의 꿈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검은 거인이 걸어온다. 쿵쿵쿵.

덜덜 듯이 위협적으로 사이도를 향해 다가온다. 두려움에 헉싸인 사이도.

공포에 질려 비명 지른다. 안 돼. 안 돼. 제발!!!

#### S#43. 사이도의 침소

악몽을 꾸며 일어나는 사이도.

잘린 왼쪽 손은 긴 팔로 가리고 있다.

소맷부리로 식은땀을 닦는 사이도.

베개를 들치면 총이 나온다.

오른손으로 총을 쥐는 사이도. 누구라도 나타나면 쏠 기세다.

사이도            장진홍! 반드시 죽이고 만다.

#### S#44. 숲 /낮

진홍과 광복군들 일정한 속도로 숲속을 뛰고 있다.

#### S#45. 숲속 언덕 /낮

100여 명의 일본 군사들이 숲속을 지나고 있다.

말을 탄, 일본군 장교와 가네마가 나란히 앞에 서 있다.

언뜻 덩불 속에서 희끗희끗 보이는 옷자락. 장교가 손을 들어 멈춤 신호를 보낸다.

장교, 멈춰 서서 경계하듯 주위를 둘러본다.

무언가 덩불 속에 숨어 있다.

장교, 신호를 보내면 타타타타....덩불 속을 향해 난사하는 일본군들.

잠시 후, 사격을 멈추는 일본군. 조심스럽게 덩불 속으로 들어간다.

덩불 속에서 사람 옷을 입은 허수아비를 안고 나오는 일본군.

총알에 누더기가 된 허수아비다.

가네마와 사이도, 예감이 안 좋다.

가네마            돌아간다!

가네마, 말을 돌리려는데.

사이도            안돼! 어떻게 잡은 놈인데 절대 물려서면 안 된다.

가네마            함정이면 다 같이 죽는다.

사이도            내가 책임진다.

이때 사방에서 불화살이 날아와 허수아비를 태운다.

순식간에 불이 붙는 허수아비. 불은 주변의 풀숲으로 번진다.

화염에 휩싸인 풀숲에서 우왕좌왕하는 일본군들.

가네마, 불이 붙지 않은 한쪽으로 말을 몬다.

가네마            이쪽이다.

사이도도 마지못해 말을 돌리는데. 등 뒤에서 들리는 말발굽 소리.

사이도, 소리가 나는 곳으로 고개를 돌린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 잠시 후 화염을 뚫고 말을 타고 달려오는 장진홍.  
놀라는 가네마. 장진홍이 가네마를 향해 총을 쏜다.  
말 탄 가네마가 장진홍의 총을 맞고 말에서 떨어진다.  
일본군들이 당황하며 흩어지는데 사방에서 총알이 날아든다. 퍽퍽 쓰러지는 일본군들.

사이도            2명씩 짝을 지어 등을 맞대고 적들을 주시하라.

일본군들도 대응 사격을 하지만 진홍이 속도와 방향을 계속 바꾸는 바람에 여의치가  
않다.  
산등성이를 오르내리며 게릴라 작전을 펼치는 진홍과 광복군들.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며 일본군들을 짓밟는다.

일본군 하사            기관총 발사!

진홍, 하사를 조준해 맞춘다. 쓰러지는 하사.  
기관총이 산등성으로 날아든다.

진홍            (소리친다.)2소대 기관총을 잡아라!

나무를 타고 기어 올라가는 광복군들.  
일본군들이 나무 위로 총을 쏘지만, 나뭇잎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긴장하고 있는 사이 나무에서 일본군들을 덮치며 떨어지는 광복군들.

진홍            공격!

숨어 있던 광복군들이 숲에서 우르르 뛰어나온다.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는 일본군들.  
도망가다 쓰러지는 일본군들을 사로잡는 광복군들.  
도망치는 일본군들은 기룡이 가차 없이 베 버린다.  
사방에 흩어져 있는 일본군의 사체들.  
광복군들,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함성을 질러댄다.  
인질로 잡혀 있던 일본군들 사이에 보이는 사이도.  
이를 갈며 돌아선다.  
광복군들이 승리에 취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장교 제복과 모자를 벗어버리고 일  
반 군인들 사이에 몸을 숨긴다.

**S#46. 막사 안 / 새벽**

장진홍과 이필국, 이정철, 오중, 정화, 춘양 등이 모였다.

진홍           장소가 드러난 이상 일본인들이 들이닥치는 건 시간문젠입니다. 모두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이필국        어디로 가실 겁니까?  
진홍           조선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정철        위험하지 않을까요?  
진홍           아직 조선에서는 나에 대해 모르니 신분을 숨긴다면 괜찮을 겁니다.  
이필국        조심하십시오.  
진홍           꼭 다시 살아서 만납시다.

진홍이 손을 내밀면,  
차례로 진홍의 손 위에 손을 얹는다.

#### S#47. 냇가 근처

근처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의환의 바지.  
옆에는 죽은 멧돼지가 놓여있다.  
진환과 의환이 세수를 하는데 총을 든 일본인 다섯 명 정도가 냇가로 다가 오고 있다.  
죽은 멧돼지를 살펴보는 일본인들.

의환           (냇가 밖으로 나가며 소리치는)왜 남의 멧돼지에 손을 대고 지랄이야? 꺼져!  
일본인1       (노려본다)이 산에서 잡은 멧돼진가?  
진환           당연할 걸 왜 묻소. 설마 멧돼지를 바다에서 잡았겠소.  
의환           (웃는)크하하하.

일본인1, 의환을 노려본다.

일본인1       이 산의 모든 권리는 나에게 있다. 이 산에서 난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니 이 멧돼지를 가져가겠다.  
의환           이게 무슨 개씨나락 까먹는 소리야.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잡았는데! 이런 날도둑놈 새끼들.

의환, 멧돼지를 가져가려는 일본인들에게 달려들자,  
일본인들이 칼로 의환을 위협한다.  
그때 일본인의 목을 겨누는 날카로운 단도.

진홍            그 칼 내려놓지.  
의환            (진홍을 보고)큰 형!  
일본인1        (흠칫 놀라서 칼을 내려놓는다.)  
진홍            멧돼지는 잡은 사람이 임자다. 그러니 당신들은 절대 이 멧돼지를 못  
                  가져간다.  
일본인2        빠가야로. 너흰 내 물건을 훔친 도둑놈들이야! 당장 감옥에 쳐 넣을  
                  수도 있어!

일본인2가 의환에게 주먹을 날린다.  
바닥에 쓰러진 의환에게 발길질하는 일본인들.

진홍            그만해라!  
일본인1        (진홍을 본다)이런 조센징은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일본인1, 다시 의환을 발로 차면,  
의환도 주먹질하는데,  
헛손질만 하다 일본인들에 맞아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다.  
진홍이 쏘살같이 일본인들에게 달려든다.  
퍽! 퍽!  
날렵하게 치고 빠지며 하나, 둘, 일본인을 쓰러뜨리는 진홍.  
진환도 그 틈에 팔로 일본인의 목을 조인다.  
순식간에 쓰러져 바닥에 뒹구는 일본인들.  
일본인1, 당황한다.

일본인1        (뒷걸음질 치며)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라.

일본인1, 달아나고.  
쓰러져 있던 일본인들도 일어나서 허둥지둥 달아난다.  
그 모습을 보며 깔깔거리고 웃는 의환.  
진홍, 쓰러져있던 진환을 일으킨다.

(시간경과)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저고리들.  
진홍과 진환, 의환이 나란히 풀밭에 누워 있다.  
진환과 의환은 얼굴에 멍이 들었다.

의환 어찌 된 일입니까?  
 진흥 조선인이 내 고향에 온 게 뭐 이상하니?  
 진환 무슨 일 있는 건 아닙니까?  
 진흥 광복군 근거지가 노출됐어.  
 의환 이 개새끼들. 거기까지 손을 뻗다니.  
 진흥 걱정하지 마라. 그러잖아도 조선에 들어올 생각이었으니까.  
 멧돼지도 잡고 제법이구나.  
 진환 누구한테 배운 솜씨네요.  
 의환 이렇게라도 잡아야 배에 기름 좀 채우지.  
 농사지으면 뭐 합니까? 다 뺏기고 굶어 죽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진흥 수탈이 심하다는 얘기는 듣고 있었다.  
 의환 참다못해 만세 운동이 전국적으로 불지 않았습니까?  
 진환 (주변을 살피며 속삭이는)여기서도 곧 만세 운동이 열릴 겁니다.  
 진흥 나도 얘기 들었다.  
 의환 와. 역시 광복군 대장은 소식도 빠르구나.  
 진흥 일제의 침략과 수탈을 전 세계에 알릴 기회야.  
 진환 우리도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따끔하게 똘가 보여줘야지요.  
 진흥 (웃으며 의환 보며)년 이미 지도로 보여준 거 같은데. 아까 보니까 바  
 지에 조선팔도를 아주 선명하게 그렸더만.  
 의환 그거야 멧돼지한테 쫓기다..  
 진환 너무 놀라서 오줌을 싸지 야!  
 의환 작은형 입 다물지 못하니?  
 진흥 겁나서 오줌을 싸면 어쩌니 멧돼지를 잡은 게 중요한 거야.  
 (씩 웃으며)우리가 조선의 남아라는 걸 잊지 않으면 된다.  
 의환 그럼. 우리는 조선의 남아지.

어깨동무하는 세 사람. 멀리 하늘을 바라본다.

진환 우리 셋. 이렇게 이 땅에서 영원히 함께하면 좋겠다. 그럴 수 있을까?  
 의환 당연하지.  
 진흥 (걱정스럽게)몸조심해라.

어깨동무를 하는 세 사람의 어깨 너머로 아름답게 노을이 진다.

#### S#48. 칠곡 저잣거리

저잣거리에 복적이는 인파들.  
일본군들이 곳곳을 매의 눈으로 훑고 있다.  
태연하게 장을 보는 척하는 사람들.  
그중에 진홍과 진환, 의환의 모습도 보인다.  
누군가 눈짓을 보내며 품에서 태극기를 꺼내 저잣거리 중앙으로 뛰어나가며 소리친다.

“조선 독립 만세! 조선 독립 만세! 조선 독립 만세!”

남자의 선창을 따라 저잣거리에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품에서 숨겨온 태극기를 꺼내 흔들며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친다.  
진홍과 진환, 의환도 목이 터지라고 만세를 외친다.  
그러나 곧이어  
탕!  
총소리와 함께 일본군이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간다.  
달아나는 사람들과 쫓는 일본인들 사이에 대 혼란이 일어난다.  
만세 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민중도 슬그머니 달아나는 사람들을 숨겨주거나 피하게 도와준다.  
일본인이 일반백성의 뺨을 거칠게 때리고 발로 짓밟는다.  
진홍이 달려와 일본인을 잡자 진환과 의환이 맞고 있던 사람을 끌고 간다.  
일본인이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진홍을 노려보지만, 진홍이 주먹으로 가격해 의식을 잃는다.

#### S#49. 근처 교회

만세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교회로 뛰어 들어가 숨는다.  
쫓아온 일본군이 교회를 잠근 채 햇불에 불을 붙여 교회 안으로 던져 넣는다.  
미처 교회로 들어가지 못하고 숨어 있던 진홍이 그 모습을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한다.  
달려 나가려는 진홍을 힘겹게 붙잡는 진환과 의환.

#### S#50. 저잣거리 일각

달아나다 잡힌 초로의 노인에게 몽둥이를 마구 휘두르는 일본인.  
총의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때리는 일본인.  
여자의 배를 마구 발로 차는 일본인.  
사방에서 피가 된다.

진홍이 일본군의 만행을 지켜보며 입술을 앙다물며 주먹을 움켜쥐었다.

#### S#51. 마을 공터 앞 /아침

천막이 쳐져 있다.

기예단원들이 공터 앞에 모여서 주먹밥을 먹고 있다.

왕지엔이 천막 앞으로 걸어온다.

밥을 먹던 단원들이 왕지엔에게 인사한다.

#### S#52. 진홍의 고향집 마루

진환이 문을 열고 걱정스럽게 본다.

진홍이 방안에 처박혀 고민 중이다.

진환이 조용히 방문을 닫는다.

의환            밥도 안 먹고 며칠째 저러고 있는데 괜찮을라나.

진환            깊은 생각이 있으시겠지.

의환            걱정이오.

진환            ...

#### S#53. 진홍의 고향 집 방

진홍이 진환과 마주 앉아있다.

진홍            일제의 만행을 세상에 알려야겠다.

진환            (돈뭉치를 건넨다.)전답 5두락 팔아 만든 자금입니다.

형님이 쓰십시오.

진홍            (진환의 손을 꼭 잡는다.)고맙다.

#### S#54. 몽타주

패랭이를 쓰고 붓짐을 메고 서적 행상으로 변신한 진홍.

전국에 있는 장터를 돌아다니며 독립운동을 돕는 상인들과 눈짓을 한다.

교회.

몰래 모인 독립군에게 일제의 학살, 방화, 고문 사실이 적힌 서류를 건네는 진홍.

한약방.

책을 파는 척하면서 책 사이에 서류를 꽂아 전달하는 진홍.

들판을 걸어간다.

들판을 걸어가는 진흥의 모습 위로 초목들이 여름, 가을, 겨울, 봄옷을 갈아입는다.

#### S#55. 인천의 저잣거리

나루터 근처에 열린 저잣거리.

수염이 덩수룩하게 자란 진흥, 여름 더위에 땀을 닦으며 붓짐을 메고 거리를 걸어가는데, 누군가 쪽지를 전해주고 간다.

고개를 돌려 쪽지를 건넨 사내를 찾지만, 어느새 인파에 묻혀 보이지 않는다.

진흥이 쪽지를 확인한다.

‘미국 군함 인천항 입항’

진흥의 표정이 굳는다.

#### S#56. 인천항

숨어서 인천항에 입항한 미국 군함을 훑쳐보는 진흥.

군함에 미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군함에서 나오는 승무원 하사관 김상철.

주변을 두리번거리자 진흥이 휘파람을 분다.

상철이 휘파람 소리가 난 곳으로 고개를 돌린다.

(시간경과)

진흥이 상철과 마주 서 있다.

상철에게 서류를 건네는 진흥.

진흥                   일본의 만행을 적은 문섭니다. 영어로 번역해서 세계 각국에 배포해 주시오.

상철                   ...노력은 해 보겠지만 장담은 못 합니다.

진흥                   동지를 믿겠습니다.

진흥이 상철의 손을 꼭 잡는다.

#### S#57. 부산 경산시장

자막            1927년. 부산 경산시장.

주변을 살피며 저잣거리를 걸어가던 이내성이 매약상 안으로 들어간다.

### S#58. 매약상

(소리)            어서 오십시오.

안으로 들어오는 이내성을 반갑게 맞는 남자, 33세의 장진홍이다.

진홍            동지!

(시간경과)

테이블 앞에 마주 앉은 진홍과 이내성.

이내성            장동지한테 소개해 줄 사람이 있습니다.

진홍            저한테요?

이내성            예. 장동지도 아주 좋아할 겁니다. 한때 목숨을 걸고 함께 투쟁하던 사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진홍            누구데요?

이내성            (웃으며)궁금해하는 걸 보니 직접 만나보는 게 좋겠습니다. 하하하.

진홍            짓궂으십니다.

진홍, 웃으면서도 궁금한 표정이다.

### S#59. 매약상 앞

진홍이 밖으로 나와 이내성을 배웅한다.

저잣거리를 지나가던 오중, 진홍을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며 몸을 숨기고,

진홍이 이내성을 배웅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몰래 훑쳐본다.

### S#60. 부산 경찰서 / 아침

사이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그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 오중.

사이도            확실한가?

오중              불알친구를 못 알아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이도            만약 거짓이면 니 목숨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중              결단코 진실입니다.

사이도            (실눈을 뜨고 혼잣말한다.)장진홍! 니 놈 때문에 중앙무대가 아닌 이 따위 시골구석에 처박혀서 순사나 하는 복수를 반드시 갚아주겠다. (오중을 보며)이제부터 너는 장진홍 그놈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말고 나한테 모조리 보고해라.

오중              (90도로 고개 숙이며)하이!

### S#61. 거리

진홍, 거리를 걸어가는데 부하들과 함께 마주 오던 가네마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본다.

가네마            어이 잠깐!

진홍이 걸음을 멈추고 가네마를 돌아본다.

가네마의 얼굴을 알아보고 잠시 놀라는 진홍. 이내 태연한 척 미소를 짓는다.

진홍              무슨 일이십니까?

가네마            우리 어디서 본 적 없습니까?

진홍              글썄요.

가네마            무슨 일을 하시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진홍              저는 경산시장에서 매약상을 하는 장진홍입니다.

가네마            장진홍이라. 음. (진홍을 뚫어져라 쳐다보지만 기억하지 못한다.)실례가 많았습니다.

진홍, 인사하고 간다.

몇 걸음 걷다 다시 걸음을 멈추는 가네마.

가네마            (기억해 냈다.)하바로스크! 광복군!

가네마 획 고개를 돌리는데 어느새 진홍의 모습 사라지고 없다.

가네마가 진홍이 사라진 곳으로 달려간다.

### S#62. 공연장 /낮

수십 명의 사람이 중국 기예단의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불쇼와 공중제비 공연이 펼쳐진다.

#### S#63. 공연장 천막 밖 /낮

진홍, 빠른 걸음으로 기예단 천막 쪽으로 걸어간다.

#### S#64. 공연장 안 /낮

딩레이와 여자 무용수들이 현란한 칼춤을 추고 있다.  
관객들, 딩레이의 아름다운 동작을 눈을 잃고 쳐다본다.  
딩레이, 춤을 추다가 문득 무대로 들어오는 진홍을 발견한다.  
초조한 얼굴로 연신 뒤를 돌아보는 진홍.  
딩레이, 잠시 동작을 멈춘다.  
하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공연을 이어간다.

#### S#65. 공연장 일각 /낮

달려오던 일본 군인들이 멈춰 서서 사방을 둘러보며 누군가를 찾는다.  
공연장에 시선이 멎는 가네마.

#### S#66. 공연장 /낮

딩레이의 검술 시범이 펼쳐지고 있다.  
딩레이, 작은 칼을 들고 사람을 그려 넣은 과녁을 노려보다가 주저 없이 던진다.  
칼은 과녁 주변에 아슬아슬하게 꽂힌다.  
관중들의 박수 소리.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린다.  
다급해진 진홍, 숨을 곳을 찾지만 마땅치 않다.

딩레이            지금부터 사람을 세워 놓고 맞추는 시범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관중들, 웅성거리며 동요한다.  
딩레이, 관중석을 둘러보는 척하다 진홍을 가리키며.

딩레이            나오세요!  
진홍                !!!



가네마 (양조잉에게)당신이 여기 대장인가?  
양조잉 (한국말)기예단 단장이요. 공연 중에 이게 무슨 짓입니까!  
가네마 광복군 우두머리가 여기에 숨어 있다.  
양조잉 (노려보며) 우린 중국인이요. 이건 심각한 외교 문젯니다.  
가네마 억울하면 당신 나라에 정식으로 보고하시요. 지금 청나라가 그럴 겨  
를이 있을 진 모르겠지만…. (비열하게 미소)  
양조잉 !!

술렁이는 관중들. 일본군들이 관중들을 거칠게 다루며 진흥을 찾고 있다.  
찾지 못했다는 듯 고개를 젓는 일본군인들.  
날카롭게 주위를 둘러보는 가네마.

양조잉 보시다시피 여긴 공연을 즐기러 온 관객밖에 없소. 이제 공연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공연비를 다 물어주시던가요.

가네마, 양조잉을 노려보다 일본 군인들에게 손짓한다.  
절도 있게 철수하는 일본군인들.  
가네마, 공연장을 나가려다 문득 무대에 서 있는 진흥을 발견한다.  
진흥에게 다가가는데 덩레이가 그 앞을 막아선다.

덩레이 그만 가주시지요. 당신 때문에 관객을 더는 기다리게 할 수 없으니.  
가네마 (진흥을 보며)조선징인가?  
덩레이 중국인이요. 오래된 내 과녁이지요.

관객들이 와하하 웃음을 터트린다.  
가네마 덩레이의 손에서 칼을 속 빼앗는다.  
긴장하는 덩레이.  
가네마가 획! 칼을 날린다.  
차마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감는 관객들.  
탁!  
장진흥의 눈 옆에 꽃히는 단도.  
진흥이 꿈쩍도 안 한다.

가네마 훈련받은 과녁 답군.

자리를 떠나는 가네마.  
일본 군인들이 우르르 뒤를 따른다.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장진홍을 보는 덩레이와 양조잉.  
장진홍, 천을 벗고 천막을 빠져나가는 가네마를 바라본다.

#### S#67. 기예단 숙소 /저녁

단원들이 서둘러 공연장 주변에 세워져 있는 천막을 정리하고 있다.  
양조잉이 굴절을 데리고 덩레이 천막으로 다가간다.

#### S#68. 덩레이 천막 /저녁

덩레이와 마주 앉아있는 진홍.

진홍            이내성 동지가 소개해 주겠다는 사람이 덩레이인줄은 몰랐습니다.  
                  아는 사람이라고는 했지만, 덩레이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덩레이        나도 부산에서 진홍을 만나게 될 줄 몰랐어요.  
진홍            잘 지내셨소? 어떻게 지냈소?  
덩레이        공연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죠.  
진홍            결혼하셨소? 단장이 좋은 사람 같던데.  
덩레이        네. 좋은 사람이에요. 양조잉이 아니었다면 벌써 죽었을 것예요.  
진홍            다행입니다. 당신이 항상 걱정이었는데.  
덩레이        소개해 줄 사람이 있어요.

천막으로 양조잉과 굴절이 들어온다.

덩레이        마침 들어오는군요. 이쪽은 단장인 양조잉.

양조잉이 진홍과 악수한다.

덩레이        그리고 이쪽은 일본인이에요.

진홍이 멈칫하자 굴절이 미소를 짓는다.

굴절            굴절이라고 합니다. 나 나쁜 사람 아닙니다. 나도 대한민국의 독립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진홍이 굳은 얼굴로 덩레이를 쳐다본다.

딩레이            믿어도 좋아요. 굴절은 그동안 쪽 조선에서 나와 독립운동하는 동지들을 도왔어요.

진홍                (여전히 굳은 얼굴로 굴절과 악수한다.)장진홍입니다.

딩레이            굴절은 폭탄 전문가예요.

진홍                폭탄이요?

양조잉            그동안 대구와 부산 등지에서 일어난 경찰서 폭탄 사고들이 모두 굴절의 작품이죠.

딩레이            우리는 오늘 밤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진홍                오늘 밤이요?

딩레이            사실 며칠 더 있다 떠날 생각이었는데 가네마한테 들킨 이상 절대 머무르면 안 돼요. 가네마도 곧 하바로스크에서 날 만났던 걸 떠올릴 테니까.

양조잉            딩레이!

딩레이가 양조잉이 던진 총을 받는다.

딩레이            우리 부모님을 죽인 일본 놈이 부산에 와 있어요.  
떠나기 전에 그곳에 폭발물을 설치할 거예요.

진홍                나도 가겠습니다.

양조잉            같이 이동하면 더 눈에 떨 겁니다.

진홍                조심하십시오.

딩레이            진홍도 곧 이 도시를 뜨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럼 살아서 만나요.

딩레이와 양조잉, 굴절이 막사를 나간다.  
혼자 남은 진홍, 결연한 얼굴로 뒤따라 막사를 나간다.

### S#69. 경찰서 /저녁

경찰서로 들어가던 가네마.  
옷에 묻은 먼지를 털다 갑자기 사색이 되어 멈춘다.  
줄줄이 이동을 멈추는 일본군.  
창백한 얼굴의 가네마,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플래시컷)

하바로스크 광복군과 일본군의 전투.

가네마가 덩레이를 발견하고 총을 발로 차서 떨어뜨리고 격투기를 한다.  
밀리는 가네마. 덩레이가 일본군의 몸에 매달려 목을 조른다.

가네마 (돌아서며)다시 돌아간다!!!

가네마, 말에 올라타 힘껏 채찍질해 달려 나간다.  
그 뒤를 따르는 일본군인들.

#### **S#70. 총독부 파견소 앞 /밤**

누군가 총독부 파견소를 살피는 그림자.  
작은 가방을 등에 멘 덩레이다.  
덩레이, 몸을 낮춰 날렵한 동작으로 산비탈을 내려가 총독부 파견소 쪽으로 뛰어간다.

#### **S#71. 파견소 앞 /밤**

정문에 일본군인 두 명이 보초를 서고 있다. 담장 너머로 일본 군인들이 모닥불을 피고 술을 마시는 모습이 보인다.  
덩레이, 파견소 옆 담장을 날렵하게 넘더니 술 마시는 군인들의 시선을 피해 연병장을 가로질러 막사 안으로 들어간다.

#### **S#72. 막사 안 /밤**

황해도와 평안도 일대의 지도가 걸려 있고 책상과 서류보관함이 보인다.  
덩레이, 조심스럽게 막사 안으로 들어와 사방을 살핀다.  
파견소 곳곳에 밝혀 놓은 햇불의 빛이 희미하게 막사 안으로 들어와 겨우 시야가 보일 정도다. 덩레이, 책상 위에 놓인 작전 지도를 유심히 살핀다.  
그리고는 서류함으로 다가가는데. 깜짝 놀라 몸을 숙인다.  
술 취한 일본군 한 명이 막사 담벼락에 대고 소변을 보고 있다. 소변을 끝낸 병사가 연신 소리를 지르며 무리로 돌아간다. 일본군이 사라지면.  
덩레이, 서류함을 조심스럽게 열어 서류들을 일일이 확인하더니 그중 몇 장을 접어 품에 넣고 폭탄을 설치한다.

#### **S#73. 파견소 일각 /밤**

담을 넘어 정문 반대쪽으로 뛰어가는 덩레이.  
이때, 덩레이의 앞을 가로막는 일본군인. 덩레이에게 총을 겨눈다.

꼼짝없이 잡힐 상황.  
그때 일본군의 뒤로 굴절 나타난다.  
딩레이, 긴장한 채 일본 군인에게 다가오는 굴절.

굴절            무슨 일이냐!

일본군이 굴절을 장교로 알고 절도있게 경례한다.

일본군            침입자를 잡았습니다.  
굴절            침입자?  
일본군            안에서 나오는 걸 잡았습니다. 첩자가 분명합니다.

그때 덩레이가 일본군의 시선을 잡기 위해 두 손을 든다.

일본군            꼼짝 마라!

일본군이 덩레이에게 총을 겨누는 순간 굴절이 뒤통수를 가격해 쓰러뜨린다.  
퍽!  
그대로 기절하는 일본군.  
미소 짓는 굴절.  
함께 온 양조잉이 덩레이를 끌어안는다.

굴절            어서 가시오.

딩레이 고개를 끄덕이고 파견소를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곧이어 평! 소리와 함께 파견소 건물이 폭발하며 불길이 치솟는다.

#### **S#74. 마을 공터 /밤**

가네마, 말을 타고 달려오다 멈춰 선다.  
기예단 무대와 천막이 모두 철수된 상태. 텅 비었다.  
가네마, 허탈한 표정.  
지나가는 남자에게 칼을 겨눈다.

가네마            모두 어디로 갔나?!

남자            (겁먹어)저...녁에 짐 싸서 떠났습니다. 나리. 공연이 끝나서 청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가네마 (화가 치솟는)빠가야로!!!

가네마, 남자의 목을 단칼에 베어 버린다.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지는 남자.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겁을 먹고 서둘러 몸을 피한다.

그때 총독부 파견소 건물 쪽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는다.

가네마 파견소 쪽이다! 모두 파견소로!

가네마가 앞장서고 일본군들이 뒤를 따른다.

### S#75. 파견소 일각/새벽

일본군들이 소리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건물에 붙은 불을 끄는 모습.

진홍이 구경꾼들 사이에 숨어서 보고 있다.

### S#76. 파견소 / 아침

처참하게 무너진 파견소 건물.

건물 앞을 일본군들이 지키고 있다.

구경꾼들 사이에 숨어 잔해만 남아있는 건물을 보는 진홍의 얼굴이 상기된다.

### S#77. 저잣거리

저잣거리를 걸어가는 진홍.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접어들어 골목과 골목을 꺾어져 들어간다.

허름한 건물 앞에서 주변을 살피는 진홍, 미행하는 사람이 없자 안으로 들어간다.

### S#78. 밀실 안

진홍을 기다리고 있던 굴절이 일어나서 악수를 한다.

굴절 나를 만나자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홍 폭탄이 필요합니다.

굴절 폭탄이요?

진홍 관공서와 은행 공공기관을 폭파 할 계획입니다.

굴절            쉽지 않을 텐데요.  
 진홍            그러니 해야지요. 파견소 건물 하나 폭파되어도 저렇게 우왕좌왕인데  
                   내가 말한 곳들을 폭파하면 행정업무가 마비되어 아마 큰 혼란에 빠  
                   질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굴절.  
 굴절            (고민하다)그럼 많은 폭탄이 필요하겠군요. 알겠습니다. 곧 만주에 갈  
                   일이 있는데 그때 폭탄을 가져오기로 하죠.  
 진홍            고맙습니다.

### S#79. 부산 경찰서

가네마가 사이도의 책상 앞에 서 있다.  
 사이도가 책상을 내려치며 일어난다.

사이도            장진홍이랑 덩레이가 같이 있었다고?  
                   그걸 왜 지금 얘기해?  
 가네마            덩레이를 미쳐 기억해 내지 못했습니다. 워낙 많이 변해 있어서.  
 사이도            그렇다면 이번 총독부 파견소 폭파사건에 덩레이와 장진홍이 연관돼  
                   있단 말이지?  
 가네마            기절했던 군인한테 물어보니 덩레이와 인상착의가 일치합니다.  
                   그런데 같이 있던 남자는 장진홍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일본말을  
                   능숙하게 써서 일본 간부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사이도            그놈이 일본 간부인 척 일을 꾸밈을 수도 있다. 영특한 놈이니까.  
                   아마 한 번으로 만족하지 않을 거야. 당장 장진홍을 찾아야 해.  
                   전국에 수배 때려!  
 가네마            하이!

가네마가 인사하고 나간다.

사이도            장진홍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반드시 잡겠어!

사이도가 책상 위의 서류를 손으로 째 움켜쥐었다.

### S#80. 밀실 안

장진홍이 밀실로 들어온다.  
 모자를 벗자 희끗희끗한 노인으로 변장한 모습이다.

굴절           누군지 몰라봤습니다.  
 진홍           그날 이후 경계가 삼엄해져서요. 부탁한 건 가져오셨습니까?  
 굴절           기성 폭탄은 실험해보니 폭발성능이 너무 약했습니다. 더구나 국내로 반입하기에 경비가 삼엄해서 국경을 통과하기에 위험 부담이 있었습니다.  
 진홍           (실망하는)그럼 가져오지 못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굴절           대신 성능이 더 우수한 폭탄을 가지고 왔습니다.

굴절이 테이블 위에 다이어마이트와 뇌관 4개, 도화선을 올려놓는다.

진홍           이게 뭡니까?  
 굴절           폭탄을 만드는 재롭니다.  
 진홍           이걸로 폭탄을 만든단 말입니까?  
 굴절           예. 제가 장형에게 폭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굴절이 다이어마이트와 뇌관, 도화선을 함석관에 넣고 주위에 여러 개의 철편을 채운다.  
 완성된 폭탄을 보고 감동하는 진홍.

### S#81. 몽타주

밀실에서 동지들을 만나는 진홍.  
 폭탄을 보여주며 설명한다.  
 지도에 경찰서, 조선은행, 식산은행, 법원, 형무소, 동척 대구지점, 지서, 대구부호 모씨댁 9개를 표시한다.

### S#82. 밀실

동지들과 모여있는 진홍.

동지1           그럼 폭탄을 만드는 다이어마이트는 어디서 구합니까?  
 진홍           도로 공사장이나 광산 노동자를 매수해서 입수할 겁니다. 일단 영천에 거주하는 박문선을 통해 다이어마이트와 뇌관, 도화선을 받기로 했습니다.  
 동지2           그러다가 새 나가기라도 하면요.  
 진홍           만일 검거되면 동지들과의 관계를 자백하지 않고 한 사람이 전 책임 질 것을 서약을 받았습니니다.

동지1            믿을 수 있습니까?  
진홍            믿어야지요. 일단 황진박, 박관영 두 동지가 뜻을 같이하기로 하였습  
                      니다.  
동지3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폭탄 의거에 목숨을 바치기로 맹세합시다.

진홍이 먼저 손을 내밀면 동지들이 우르르 결의에 찬 표정으로 손을 덮는다.

### S#83. 진홍의 거처

#### S#84.

제조한 폭탄을 종이에 싸서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는다.  
가방을 메고 일어나는 진홍.

### S#85. 조선은행 앞

몰래 숨어서 기다리는 진홍.  
그러나 시간이 가도 기다리는 황진박과 박관영은 나타나지 않는다.  
진홍,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데 황진박과 박관영이 나타난다.

진홍            어찌 된 일이오?  
황진박        미안하오. 아무리 생각해도 폭탄투척은 마땅치 않은 것 같소.  
진홍            (박관영을 보면)  
박관영        미안하오.  
진홍            (매섭게 표정 변하며)알겠소. 동지들의 뜻이 그렇다면 강요할 생각은  
                      없소. 이 일은 단독으로 진행하겠소.

진홍, 황진박과 박관영을 지나쳐 간다.

### S#86. 진홍의 거처

진홍, 다이너마이트, 뇌관, 도화선, 쇠붙이 파편을 이용해 폭탄 2개를 완성한다.  
진지한 얼굴로 폭탄을 살펴보는 진홍.

### S#87. 칠곡의 협곡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진홍이 폭우를 맞으며 협곡 사이에 폭탄을 설치하고 심지에 불을 붙인다.  
재빨리 돌아서 뛰어 커다란 바위 뒤에 몸을 숨기는 진홍.  
잠시 후 굉음과 함께 협곡이 폭파한다.

양손으로 귀를 막고 엎드려 있던 진흥이 고개를 들고 폭파 현장으로 다가간다.  
양벽이 완전히 붕괴한 협곡.  
진흥이 그 위력에 놀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시간경과)

사이도가 부하들과 함께 폭파된 협곡을 살펴보고 있다.

#### S#88. 부산 경찰서

사이도            칠곡과 선산의 근계의 협곡에서 폭파가 일어났다는 제보가 있다.  
                      누군가 폭탄으로 또다시 장난을 치려고 한다.  
                      대일본제국경찰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놈을 색출해내라!  
가네마            알겠습니다.

#### S#89. 진흥의 거처

지도에 경북도청, 경북 경찰부, 조선은행 대구지점, 식산은행 대구지점, 대구 부호집  
5개를 표시하는 진흥.  
다이너마이트와 뇌관, 도화선 등으로 폭탄을 제조한다.  
완성된 폭탄 6개 중 1개는 남겨두고 1개는 품속에 넣는다. 나머지 4개를 신문으로 포  
장하는 진흥. 4개의 소포를 가방에 담아 집을 나가는 진흥.

#### S#90. 덕흥여관

모자를 쓴 진흥이 다리를 절뚝이며 안으로 들어온다.

박노선            어서 오십시오.  
진흥                방 있습니까?  
박노선            예. 하룻밤이요?  
진흥                어젯밤에 2층 청소를 하다 추락을 해서요. 다리가 이 모양이라.(절뚝  
                      이는 다리를 보여준다.)  
박노선            아이구 어쩌다 그래.  
진흥                그래서 별수 없이 4, 5일간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노선            예. 걱정하지 말고 폭 요양하고 얼른 나아서 나가십시오.  
                      따라오십시오. 가방은 이리 주시고.

박노선이 진홍의 가방을 받아들자 순간 진홍이 긴장한다.

박노선 어이쿠. 몸도 불편하신 분이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뭐가 이렇게 무겁습니까?  
진홍 별꿀입니다.  
박노선 별꿀이요?  
진홍 예. 감사의 인사를 전할 분들이 계셔서요.  
박노선 아. 그러시군요.(의심 없이 걸어가며)이쪽으로 오십시오.

진홍이 아무 의심 없이 계단을 올라가는 박노선을 보며 안도하며 뒤를 따라간다.

### S#91. 객실 안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박노선.

박노선 들어오십시오.

박노선이 바닥에 가방을 내려놓는다.

진홍 고맙습니다.  
박노선 그럼 쉬십시오.  
진홍 저...  
박노선 (나가다 돌아본다.)뭐 필요하신 거라도...?  
진홍 초면에 실례지만 내가 걸을 수 없어서 그런데 별꿀 상자를 제 대신 좀 전해주실 수 있습니다.  
박노선 배달이요.? (머뭇거리면)  
진홍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사례는 드리겠습니다.  
박노선 어디로 배달을 하는데요?  
진홍 조선은행, 도청, 식산은행 세 군데입니다.  
박노선 다리가 불편하시다니까. 그렇게 하죠.  
진홍 (정중히 고개 숙이는)감사합니다.  
박노선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박노선이 방을 나가면,

진홍이 휴. 한숨을 내쉬며 멀쩡하게 걸어가 가방 안에서 폭탄 소포 4개를 꺼낸다.

### S#92. 거리

박노선, 자전거에 폭탄 상자를 싣고 배달한다.

### S#93. 조선은행 대구지점

은행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박노선.

허름한 차림의 남자가 나무 상자 4개를 들고 오는 모습을 지켜보는 은행원 길촌경.

길촌경           어떻게 오셨습니까?

박노선           저희 여관에 묵으시는 손님의 심부름을 왔습니다요.

길촌경           손님이요?

박노선           예. 여기 이거…. (나무상자 4개를 데스크 위에 올려놓는다.)선물이라고 전해드리라고 했습니다.

길촌경           누구한테 전해드릴까요?

박노선           (머리 긁적이며)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헤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박노선이 꾸벅 고개 숙이고 나간다.

은행 문을 열고 나가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던 길촌경 의아한 얼굴로 데스크에 놓인 나무상자를 바라본다.

상자를 들고 일어나던 길촌경이 멈춰서서 킁킁대며 나무상자 가까이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는다.

길촌경, 가웃거리며 다시 나무상자를 데스크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포장리본을 풀고 나무상자 뚜껑을 연다.

상자 안에 뇌관까지 불과 2센티밖에 남지 않은 다이너마이트가 들어있다.

놀란 길촌경, 창백해진 얼굴로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옆으로 다가오던 은행원이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하고 소리친다.

은행원           폭탄이다!

은행 안에 있던 직원과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간다.

다가온 다른 은행원이 가위를 들고 와 타들어 가는 뇌관을 잘라내면 뒤늦게 정신을 차린 길촌경이 남은 3개의 나무상자를 들고 은행 밖으로 나간다.

### S#94. 조선은행 밖

길촌경과 은행원들이 폭탄을 들고 밖으로 나온다.

길춘경           경찰에 신고해. 빨리.  
은행원           예.

은행원은 다시 안으로 들어가고 폭탄 4개를 든 길춘경과 다른 은행원들이 우르르 은행 옆 길가에 옮겨놓고 자리를 피하는데 쿵! 소리와 함께 폭탄이 터지고 3개의 폭탄이 연이어 터진다.

굉음과 함께 큰 불길이 일면서 담벼락이 무너지고 세워 놓은 차량이 파괴된다.

자리를 피하던 은행원들이 폭탄 파편에 맞아 쓰러진다.

은행에서 뛰어나온 직원들이 소리를 지르며 쓰러진 직원들을 부축해 이동한다.

상처 입은 직원들이 피투성이가 된 채 부축을 받아 이동한다.

폭탄이 터지는 충격으로 은행 창문이 와장창 모조리 깨지고, 유리 파편이 허공으로 산산이 흩어진다.

#### **S#95. 대구역**

오가던 사람들이 굉음에 몸을 움츠린다.

조선은행에서 날아온 유리 파편에 맞은 남자가 이마에 피를 흘린다.

#### **S#96. 저잣거리**

거리를 지나가던 민중이 멈춰 서서 폭탄이 터져 불길이 치솟는 조선은행을 바라보고 있다. 긴장한 그들의 얼굴에 환희의 표정이 스친다.

#### **S#97. 관공서**

우르르 울리는 진동에 멈칫하며 떨리는 전등을 보는 직원들.

잠시 전등불이 일제히 꺼진다.

당황하며 전화기를 드는 직원들.

그러나 전화도 불통이다.

당황하며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 **S#98. 조선은행**

폭탄이 터지고 아수라장으로 변한 현장.

사이도가 천천히 사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가네마, 다가온다.

사이도           범인은?  
가네마           덕흥여관에서 일하는 박노선이라는 자라고 합니다.  
사이도           당장 출동해서 잡아. 그리고 민중이 동요하고 있다. 이 일이 알려지면  
조센징들이 또다시 결집하는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전 시내에 비상근무령 내리고 조금이라도 허튼짓을 벌이려는  
자들은 모조리 잡아들여.  
가네마           하이!

**S#99. 덕흥여관**

경찰이 들이닥친다.  
우르르 몰려든 경찰을 보고 놀라는 박노선.  
일본 경찰들이 박노선을 잡는다.  
영문도 모른 채 울먹이는 박노선.

**S#100. 덕흥 여관 진환의 숙소**

별척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이도와 경찰들.  
방안을 수색한 경찰들이 폭탄 포장에 쓰던 풀과 포장지를 찾아낸다.

**S#101. 거리**

일본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며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  
사람들 사이에서 서 있는 진환.  
반짝이는 구두와 모자, 콧수염을 단 신사로 변장한 모습으로 일본 경찰들을 바라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진흥을 미행하고 있던 오중, 순사들이 우  
르르 지나가자 잠시 한눈을 파는데 어느새 장진홍의 모습이 사라지고 없다.

**S#102. 경찰서**

심문실에 묶여있는 박노선.  
겁에 질린 얼굴로 사이도를 올려다본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고문으로 생긴 상처와 멍, 피딱지가 맺혀있다.

사이도           바른대로 대라! 배후가 누구야?  
박노선           전 정말 모릅니다. 그냥 심부름만 한 거라니까요.  
사이도           심부름을 시킨 자가 누구야!

박노선           모릅니다. 처음 오신 손님인데 다리를 다쳐서 꼭 전해야 할 선물을  
전할 수 없다고 해서. 사정이 딱해서 제가 대신 심부름했습니다.  
사이도           좋다! 니 말을 믿겠다. 그럼 누가 시켰는지 인상착의를 대라!  
박노선           그게. 나이는 30대 중반에 얼굴이 둥글고 광대뼈가 좀 튀어나왔습니  
다. 눈이 크고 키는 사이도님 정도.

박노선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던 사이도의 표정이 굳는다.

사이도           (혼잣말로 내뱉는)장진홍 개새끼! 가네마!  
가네마           하이!  
사이도           당장 가서 오중을 데리고 와라.

### S#103. 경찰서

가네마가 오중의 귀를 잡아끌고 들어온다.

오중           아파요. 아파.

가네마가 사이도의 책상 앞에서 오중을 잡았던 귀를 놓아준다.

가네마           미인루에서 술에 취해 뺨어있는걸 잡아 왔습니다.  
사이도           (오중을 노려본다.)  
오중           (꾸벅)  
사이도           장진홍이 미행하라는 건 어떻게 됐나?  
오중           그게. 며칠 전에 감쪽같이 사라졌다 어젯밤에 다시 집에 돌아왔길래  
제가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저잣거리에서 잠깐 한눈 판 사  
이에 그만.  
사이도           놓쳤다!  
오중           예.

사이도, 광! 주먹으로 책상을 내려치자 오중이 움찔한다.

사이도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고?  
오중           예. 근데 나갈 때 변장을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엔 몰라보고 놓칠 뻔  
했다니까요.  
사이도           장진홍이 이 새끼.

사이도, 오중을 쳐다보자 오중이 술에 취해 배시시 웃는다.

사이도            감히 대일본제국 경찰의 말을 거역해!  
                      (가네마에게)다시는 허튼짓 못하게 다리 하나 부러뜨려.  
오중                (정신이 번쩍드는)순사님. 순사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진홍이가 쥐새끼같이 새벽에만 돌아다녀서. 잘못해서니다. 살려주십시오.  
사이도            다음에도 실수하면 그때 죽여버리겠다. (가네마에게 눈짓)데려가!  
가네마            예!  
오중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가네마 발악하는 오중을 질질 끌고 고문실로 사라지면.  
사이도, 턱을 괴고 골똥히 생각한다.

#### S#104. 김상한의 집

진홍과 김상한, 황진박, 박관영이 축배를 든다.

황진박            대단하십니다. 장동지.  
진홍                모두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박관영            이제 폭탄 의거로 잠자고 있던 백성들이 깨어날 겁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김상한            오늘 밤은 편안한 마음으로 폭 쉬고 내일부터 또 새로운 일을 준비해야겠지요.  
진홍                예. 조선이 독립되는 그 날을 위하여!  
모두                위하여!

모두가 술잔을 부딪친다.

#### S#105. 몽타주

진홍의 집을 들이닥치는 경찰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집안을 샅샅이 수색한다.  
매서운 눈빛으로 노려보는 사이도.

야학당을 급습하는 경찰들.  
선생들을 닥치는 대로 체포한다.

집에서 밥을 먹는 이정기와 가족들.  
경찰이 들이닥쳐 이정기를 끌고 나간다.

집 마루 탁자에 앉아 시를 쓰고 있는 이원록 선생.  
경찰이 들이닥쳐 이원록과 그가 쓰고 있던 시까지 몽땅 쓸어서 나간다.

저잣거리.  
우르르 모여있는 조선인들.  
일본 경찰이 다가가자 본능적으로 달아나는 조선인들.  
달아나는 조선인을 몽둥이로 개처럼 패고 발로 밟는 일본 경찰.  
마구잡이로 조선인들을 잡아간다.

### S#106. 경찰서 심문실

피투성이가 된 채 심문 의자에 묶여있는 이정기.  
사이도가 몽둥이로 떨구고 있는 그의 고개를 들어 올린다.

사이도            다시 한번 묻겠다. 폭탄 테러에 연루된 사람들을 모두 말해라.  
이정기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사이도            독립운동에 가담한 걸 모를 줄 아나?  
이정기            나는 폭탄에 대해선 문외한이다.  
사이도            다시 한번 묻겠다. 니놈이 폭탄을 만드는 걸 본 사람이 있다. 덕흥여  
                         관 박노선도 니 놈이라고 자백했어.  
이정기            (툭! 침을 뱉는다.)

사이도, 침을 닦아내며 살기 어린 눈빛으로 가네마에게 눈짓하면.  
가네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정기의 얼굴에 수건을 씌우고 물고문을 한다.

이정기            (비명소리)으아아악~~

### S#107. 김상한의 집

장진홍과 김상환, 황진박, 박관영 등이 모여있다.

김상환            폭탄 거사의 주범으로 이정기 선생이 거짓 자백을 하고 잡혀갔습니  
                         다.  
황진박            그뿐입니까?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잡혀가 고문

당했습니다. 육사 이원록 선생은 옥고까지 치르지 않으셨습니까.  
 박관영 폭탄 거사도 뜻대로 성사되지 못했는데 엄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진홍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한 번 더 거사를 치러야겠습니다.  
 김상환 순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장형을 찾고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진홍 각오했던 일입니다. 일본 경찰 따위 무서웠다면 시작도 안 했을 겁니  
 다. 보란 듯이 영천경찰서에 폭탄을 터트리겠습니다.  
 황진박 경찰서예요?  
 진홍 예. 거사를 함께할 사람도 이미 생각해 두었습니다.  
 김상환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 S#108. 김상환의 집 창고

진홍, 다이너마이트로 폭탄을 만들고 있다.  
 완성된 폭탄 2개를 결연한 표정으로 들여다보는 진홍.

### S#109. 밀실

경찰서 구석에 몸을 숨기고 있는 진홍과 김사실.  
 진홍이 김사실에게 폭탄 하나를 건넨다.

진홍 폭탄이 터지면 곧바로 자리를 피하십시오.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 혹시 잡히더라도 내 이름을 대시오.  
 김사실 건투를 빕니다.

진홍과 김사실 서로 부둥켜안고 일어난다.

### S#110. 영천경찰서 앞 / 새벽

모자와 양복을 입은 김사실과 진홍이 거리를 두고 걸어온다.  
 김사실이 경찰서 앞으로 다가가자 지키고 있던 경찰이 그를 힐끗거린다.  
 경찰서를 둘러싸고 있는 경찰들. 경비가 삼엄하다.  
 결국 김사실이 그들 앞을 그냥 지나쳐 간다.  
 뒤따라오던 진홍이 골목으로 들어가 몸을 숙여 경찰서 담벼락으로 향한다.

### S#111. 경찰서 담벼락 / 새벽

진홍, 조심스럽게 담벼락을 넘기 위해 담에 매달리는데, 순간 얼굴을 환하게 비추는 후레쉬.

경찰 (소리)누구냐!  
진홍 (당황한 얼굴로 경찰을 보는데)

경찰이 호루라기를 분다.  
우르르 떼거리로 몰려드는 경찰들.  
진홍, 몸을 돌려 그대로 달아나는데 ‘거기서랏!’ 경찰들이 소리치며 우르르 쫓는다.

### S#112. 거리 /새벽

달아나는 진홍.  
그 뒤를 쫓는 일본 경찰들.  
탕! 총소리가 울리자 몸을 숙이는 진홍.  
골목으로 꺾어져 주택가로 접어든다.  
지치지 않고 쫓아오는 순사들.  
진홍, 막다른 곳에서 당황하는데.  
막다른 곳의 대문이 열리면서 덩레이가 나온다.

덩레이 여기예요.  
진홍 (반가운)덩레이!  
덩레이 인사는 나중에 하고 어서 들어와요.

진홍, 황급히 덩레이를 쫓아 안으로 들어간다.  
잠시 후 골목으로 들어온 경찰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대로 지나친다.

### S#113. 막다른 집 마당 / 새벽

대문 앞에 기대 숨죽이고 있던 진홍과 덩레이, 경찰들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안도의 숨을 내신다.

진홍 여긴 어떻게.  
덩레이 아까 거리에서 쫓기는 걸 봤어요. 당신을 도와주려고 쫓아왔죠.  
진홍 여기는?  
덩레이 모르는 곳이에요. 들리기 전에 얼른 나가야 해요.

진홍            오늘 경찰서를 폭파하기로 했소.  
 덩레이        사이도가 당신을 쫓고 있어요.  
 진홍            사이도가?  
 덩레이        폭파범이 당신이라는 걸 알아낸 것 같아요.  
                   당신 인상착의가 몽타주로 떴어요. 당분간은 조선을 떠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홍            (생각에 잠기는데)  
 덩레이        어서 가요.

덩레이가 몸을 일으키자, 진홍도 몸을 일으켜 덩레이의 뒤를 따라간다.

#### S#114. 사이도의 방 안 /새벽

잠들어 있는 사이도.  
 옆에 게이샤가 누워있다.  
 사이도 악몽을 꾸는 듯 식은땀을 흘리며 인상을 찡그린다.  
 혁! 소리와 함께 잠에서 깨는 사이도.  
 멀쩡한 오른 손목을 살펴보고 안도하며 일어나 앉는다.  
 게이샤가 일어나 앉는다.

게이샤            나쁜 꿈을 꾸셨습니까?  
 사이도            물.

게이샤, 머리맡에 있는 주전자에서 물을 따라 건넨다.  
 사이도가 오른손으로 컵을 들고 물을 마신다.  
 손목이 잘린 왼쪽 소매부리가 길게 늘어져 있다.

노크소리.

사이도            누구냐?  
 가네마        (소리)가네마입니다.  
 사이도            들어와.

사이도, 게이샤에게 눈짓하면.  
 게이샤가 일어나서 종종걸음으로 물러난다.  
 가네마가 들어와 인사한다.

사이도            무슨 일이냐?  
가네마            영천경찰서에서 수상한 자를 목격했다는 전갈이 도착했습니다.  
사이도            영천경찰서?  
가네마            예. 인상착의가 장진홍과 흡사합니다.  
사이도            잡았나?  
가네마            놓쳤습니다.  
사이도            음...  
가네마            도망을 쳤다면 벌써 영천을 떴을겁니다. 조선에서 그를 잡는 건 시간  
문제니까요.  
사이도            영특한 놈이다. 그걸 모를리 없어. (생각하다)가네마!  
가네마            하이!  
사이도            일본으로 가는 항구를 샅샅이 조사해라.  
가네마            하이!

#### S#115. 항구 /낮

일본으로 가는 배가 정박해 있다.

#### S#116. 배 안 /저녁

석양이 지는 바다  
초로의 노인으로 변장한 진홍, 눈을 감고 있다. 옆에 한복을 입고 서 있는 덩레이.  
마치 아버지와 딸의 모습이다.

진홍            중국으로 돌아간 줄 알았는데.  
덩레이          국경을 넘다 체포됐어요.  
진홍            다른 사람들은.  
덩레이          도망친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진홍            양조잉은?

덩레이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덩레이          나를 구하려다 총에 맞았어요.  
진홍            ...  
덩레이          오빠도 그렇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  
었어요. 나 때문에.  
진홍            그건 덩레이때문이 아니에요. 일본 때문이지.

딩레이            두 번이나 덤으로 살아났으니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평범한 삶을 사는 건 최악인 것 같아요. 어차피 고향에 돌아가도 반겨줄 가족도 아무도 없으니. 조선 땅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우려고요.

진홍, 안타깝게 딩레이를 바라보는데 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진홍이 고개를 돌려 착잡한 표정으로 멀어지는 조선을 바라본다.

### S#117. 오사카 시내 /밤

자막            오사카.

딩레이와 나란히 걸어가는 진홍.  
지계꾼으로 변장한 오중과 옛장수로 변장한 경찰 1, 2가 행상을 하면서 딩레이와 진홍의 모습을 눈으로 좇고 있다.  
인력거가 지나가자 진홍이 딩레이의 손을 잡아끈다.  
오중, 변장해서 알아보기 힘든 진홍을 자세히 보기 위해 옆으로 다가간다.  
딩레이의 손을 잡은 채 서점으로 들어가는 진홍.  
오중, 확신한 표정으로 옛장수 1, 2를 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 S#118. 대구 경찰서

사이도, 책상에서 벌떡 일어난다.

사이도            진홍이 확실한가?  
가네마            하이! 오중이 똑똑히 확인했다고 합니다.  
사이도            음. 쥐새끼 같은 놈. 역시 일본에 있는 동생의 집에 숨어 있었군.  
                          신중해야 한다. 조금의 허점만 보여도 또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가네마            어떻게 할까요?  
사이도            분명 안경원에서 일하고 있을 테니 점원들은 그자를 알고 있을 거야.  
                          조선인 노동자가 있다면 그들을 포섭해. 그리고 장진홍의 동생 집에 정탐원을 보내라. 남자는 의심을 살 수 있으니 여자로. 안경 도매 상으로 다가가면 의심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을 거야. 이번에는 절대 놓쳐서 안 된다.  
가네마            하이!

가네마가 가면.

플래시 컷.(씬3)

노승 .....한 남자가 걸림돌이 되겠군요. 그자를 막는다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높은 자리에 이를 수 있을 겁니다.

남자 그자가 누구입니까?

노승 (눈을 감고 웅얼거리다 번쩍 눈을 뜬다.)신께서 조선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군요. 칠곡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사이도 (비열하게 웃으며)장진흥! 내 앞길을 막고 감히 내 왼손을 가져간 죄 값을 반드시 받게 하겠다. 이제 니놈도 끝이다.

사이도, 주먹을 짝 움켜진다.

#### S#119. 장의환의 안경점 앞 / 밤

임신부로 변장한 여자 정탐원, 안경원을 지켜보고 있는데 장의환의 부인이 다가온다. 신중하게 기다리다 장의환 부인이 다가오는 타이밍에 맞춰 안경원 앞으로 나가는 정탐원. 부인 앞에서 휘청거리다 주저앉는다.

장의환 부인이 정탐원을 발견하고 놀라서 다가온다.

부인 괜찮으세요?

정탐원 네.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

부인 몸도 무거운데 안색이 안 좋아요.

정탐원 몸살기가 있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탐원, 힘겹게 일어나서 걸어가다 또다시 휘청하자, 부인이 황급히 정탐원을 부축한다.

부인 안 되겠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인데. 잠깐이라도 쉬었다 가세요.

정탐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부인 그럼요. 조선 사람들끼리 도와야지요.

정탐원 그럼 신세 좀 지겠습니다.

정탐원 부인에게 기대 안경원으로 들어간다.

#### S#120. 안경원 안

부인이 정탐원을 데리고 들어오자 놀라는 장의환.

장의환            무슨 일이야?

부인                요 앞에 쓰러져 있길래. 잠깐 쉬다 가라고 데리고 왔어요.

장의환과 부인이 얘기를 나누는 사이 정탐원이 빠르게 안경원 안을 훑는다.

부인                이쪽으로 오세요.

부인이 정탐원을 데리고 내실로 통하는 문을 밀고 들어간다.

### S#121. 장의환의 집

문을 열고 나오니 바로 다다미가 깔린 마루가 나온다.

방이 2개에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인다. 정탐원이 다락방을 주시하는데 장의환의 7, 8세 아들과 딸이 방에서 나온다.

아이들            엄마~~

부인                손님 오셨다. 쉬어야 하니까 조용히들 해라.

아이들            네!

부인                잠깐 방에 들어가 누워요.

정탐원이 부인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간다.

### S#122. 안경원

밖으로 나오는 부인.

장의환            괜찮아?

부인                네.

장의환            어서 내보내. 혹시라도…. (눈짓하면)

부인                같은 조선인끼리 믿어야지요. 임산부가 무슨 일을 벌인다고. 아주버님  
은요?

장의환            공장에 있지.

부인                곧 저녁인데 밥만 맥여서 보낼게요.

### S#123. 장의환의 집 마루

장익환의 아들, 딸이 옆드려 공부하고 있다.  
방에서 나오는 정탐원.

정탐원            공부하니? 착하구나.  
아들, 딸            (경계하는데)  
정탐원            (주머니에서 사탕 꺼내 내밀며)이거 먹을래?

아들, 딸, 사탕을 받아서 입에 넣는다.

정탐원            맛있지?  
딸                (경계심 풀린)응.  
정탐원            근데 저게 뭐니? (2층 다락방을 가리킨다.)  
딸                공장이예요.  
정탐원            공장도 있니?  
딸                응. 저기서 중국 이모랑 삼촌이 일해요. 삼촌 이름은 김해중이예요.  
정탐원            김해중?  
아들              야! 아빠가 아무하고 말하지 말랬잖아.  
딸                (아차 하는 얼굴로 입을 막는다.)  
정탐원            아빠가 말하지 말랬구나.(싱긋 웃는데)

그때 마루로 들어오는 부인.

부인              왜 나와 있어요?  
정탐원            조금 쉬었더니 한결 나아서요.  
부인              저녁 준비했는데 드시고 가세요.  
정탐원            아닙니다. 신세를 계속 질 수는 없지요.  
부인              정말 괜찮겠어요?  
정탐원            예.

정탐원. 집안을 힐끗 둘러보며 나간다.

#### S#124. 안경원(다른 날)

양복과 양장 차림의 이춘득과 남주희가 안으로 들어온다.

익환              어서 오십시오.

이춘득과 남주희가 유리장에 진열된 안경들을 쪽 훑어본다.

의환           어떤 스타일의 안경을 원하시는지?  
이춘득       (몸을 일으켜 의환을 본다.)나는 조선에서 안경 도매상을 하는 이춘득  
              이라는 자올시다.  
의환           예.  
이춘득       이번에 조선에 들여갈 안경을 이곳에서 사고 싶은데.  
의환           얼마나?  
남주희       1만 5천 개요.  
의환           (놀라는)1만 5천 개요?  
남주희       저희가 조선에서 전국에 있는 안경원에 안경을 납품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거래처가 좀 부실해서 바꿔볼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곳을  
              추천받게 되었습니다.  
의환           추천이라면.  
이춘득       얼마 전에 이곳 부인의 도움을 받았던데. 제 딸올시다.  
의환           아. 그 임산부.  
남주희       그날 밤에 곧바로 산통을 느껴서 출산하였답니다.  
의환           축하드립니다.

남주희가 백에서 30원을 꺼내 진열대 위에 올려놓는다.

이춘득       계약금 30원입니다. 내일 다시 와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시죠.  
              앞으로 쪽 계약을 이어갈 사람들이니 공장 사람들을 불러서 조출하게  
              주연을 함께 하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만. 실례가 되었나요?  
의환       (멍해있다 정신 차리며)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제가 실감이  
              나지 않아서.  
남주희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이춘득과 남주희가 나가면.

여전히 믿기지 않는 얼굴로 멍해 있는 의환, 조용히 손에 들고 있는 30원을 내려다본다.

## S#125. 다락방

의환과 진홍, 덩레이가 앉아있다.

진홍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의환            그래서 알아봤는데 조선에서 안경 도매상을 하는 사람이 맞더라고.  
                   임산부도 맞고. 계약만 성사되면 형도 도와줄 수 있어.  
 당레이        이런 우연도 있군요. 하늘이 진환을 돕는 모양이에요.  
 의환            내일 술자리에 같이 나와서 모처럼 술도 한잔하시죠.

**S#126. 안경원 밖 / 밤**

불 꺼진 안경원 위로 왈카한 웃음소리 들린다.  
 어둠이 깔린 안경원을 조용히 둘러싸는 경찰들.  
 사이도와 가네마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사이도가 눈짓을 하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오중.  
 가네마의 눈짓을 받아 안으로 들어가는데, 한쪽 다리를 절고 있다.

**S#127. 장의환의 집 마루 / 밤**

이춘득, 남주희, 장의환, 부인, 장진홍과 당레이가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다.

의환            제 술 한잔 받으시죠.  
 이춘득        (술을 받는데)  
 진홍            조선 어디에서 사업을 하시는지요?  
 이춘득        부산에 있습니다.  
 진홍            부산이라면 저도 그곳에서 약재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 어디에  
                   계셨는지.  
 이춘득        뭐 이곳저곳에 지점을 두고 있지요.

이춘득이 얼버무리는 것을 의심스럽게 보는 진홍.

당레이        두 분은 부분가요?  
 이춘득        예.  
 남주희        아닙니다.

동시에 대답하다 당황하는 이춘득과 남주희.  
 순간 분위기 싸해지는데.  
 집 안으로 들어오는 오중.

오중            어이. 이게 누구야? 진홍이 아니야?  
 진홍            니가 어떻게....

순간, 모든 것을 간파한 진홍과 덩레이.  
술상을 뒤집어엎으며 별떡 일어나 밖으로 나간다.  
숨어 있던 일본 경찰들이 우르르 뛰어 들어와 두 사람을 쫓는다.

#### S#128. 건물 밖 /밤

진홍, 담을 뛰어넘으려는데 오중이 달려와 진홍을 밀친다.  
바닥에 쓰러져 뒹구는 두 사람.  
동시에 몸을 일으키는데 오중이 진홍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오중.

진홍            왜 동지들을 배신했지?  
오중            왜긴. 나도 잘살아 보고 싶어서 그랬지.  
진홍            그때 하바로스스크에서 일본군한테 정보를 넘긴 것도 너였나?  
오중            미안하지만 그렇게 됐다. 고문당하고 식구들이 죽어가는데 독립운동  
                  이 대수냐 싶어서.  
진홍            너 혼자 잘 먹고 잘살게 돼서 좋았어?  
오중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나도 너같이 태어났으면 변절  
                  자 따위 되지 않았어.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비굴하게 살아야 했는  
                  지 니가 알 리가 없지.  
진홍            어떤 변명도 국가와 민족을 버린 죄를 덮지 못한다.

진홍도 슬그머니 총을 빼 들고 오중을 겨눈다.  
그때 다가오는 사이도.  
진홍, 사이도에게 총구를 돌리는데 동시에 옆에 있던 오중을 끌어와 총알받이로 세우  
는 사이도. 진홍이 쏜 총에 맞고 쓰러지는 오중.  
경찰들이 진홍에게 대응 사격을 한다.  
순간 어둠 속에서 뛰어나와 진홍의 몸을 감싸 안는 덩레이.  
진홍, 피를 흘리며 쓰러진 덩레이에게 다가가 그녀를 끌어안는다.

진홍            덩레이! 덩레이!

덩레이, 피를 토해내며 진홍을 본다.

진홍            안돼! 덩레이 정신 차려.

덩레이, 손을 뻗어 진홍의 얼굴을 쓰다듬고 눈을 감는다.

진홍                    딩레이!

진홍의 주위를 사이도 가네마와 경찰들이 둘러싼다.  
가네마가 진홍을 일으켜 세우자 사이도가 다가간다.

사이도                장진홍! 내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나.

진홍                    (사이도를 노려본다.)

사이도                조센징 새끼!

사이도, 진홍의 뺨을 때린다.

여전히 노려보는 진홍.

사이도, 계속 진홍의 뺨을 때리다 총의 개머리판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친다.

진홍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다.

#### S#129. 대구형무소 전경 /저녁

자막                    1929년 2월 19일 대구

#### S#130. 대구형무소 안 / 저녁

진홍이 피를 흘리며 고문받고 있다.

고문을 하던 가네마가 눈치를 보며 뒤를 돌아본다.

어둠 속에서 사이도가 불만 어린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진홍의 마주 선 그의 눈에선 공포마저 흐르는데.

진홍, 사이도의 본다. 그의 눈에서 광채가 나온다.

흠칫 놀라 휘청하는 사이도.

진홍                    너희들 일본제국이 한국을 빨리 독립시켜 주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할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내 육체는 네 놈들의 손에 죽는다 하더라도 나의 영혼은 한국의 독립과 일본 제국주의 타도를 위하여 지하에 가서라도 싸우고야 말겠다!

당황한 가네마. 진홍을 채찍질하기 시작한다.

가네마                지독한 조센징. 내가 반드시 너를 꺾고 말겠다. 사이도총독을 위해서.

비틀거리는 사이도, 부축받으며 간신히 나간다.

### S#131. 법원 전경

자막                    1930년

방청하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다.

### S#132. 법정 안

적막이 흐르는 법정 안.

신문기자들과 외국 언론인들이 숨죽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피고석에 앉아있는 진홍.

판사, 진홍을 노려본다.

여유로운, 편안한 표정의 진홍.

판사                    치안유지법· 폭발물취체벌칙· 총포화약류취체령 위반과 살인예비·미수  
                              죄로 피고 장진홍을 사형에 처한다.

비탄에 빠지는 방청객들.

선고가 내려지자 진홍이 하늘을 쳐다보며 크게 웃는다.

진홍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품에서 주먹만한 돌을 꺼내 재판장을 향해  
                              던지며)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돌을 맞은 판사가 피를 흘린다.

아수라장이 된 법정.

순사들이 뛰어와 진홍을 끌고 나간다.

### S#133. 거리

신문을 보고 울먹이는 사람들.

행인1                    이런 찢어 죽일 놈들!

행인2                    조선의 힘을 보여준 장진홍 만세!

사람들이 같이 목청껏 소리친다.

사람들                    장진홍 의사 만세!

